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統一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指導教授 金 恒 元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李 琬 成

1994年 8月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統一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指導教授 金 恒 元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6 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提出者 李 琬 成



李 琬 成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4年 7 月

審査委員長 宋 咸 大 印

審査委員 金 恒 元 印

審査委員 박 용 경 印

<抄錄>

濟州道 高等學生들의 統一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李 琬 成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金 恒 元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통일의를 조사분석하여 바람직한 통일의식 형성의 방향과 통일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지역 고등학생 900명을 표집하여 통일관, 북한관, 국가관 등 3개 영역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백분비(%)와 χ^2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관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 등 15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그 반응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첫째, 통일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는 통일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눈다(3.9%)보다 전혀 나누지 않는다(23.8%)에 높은 응답을 하였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일민족이므로(22.3%)와 우리 민족이 더 잘 살기 위하여(39.3%)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둘째,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과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에 대해 각각 51.8%, 75.9%의 학생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일의 주체와 통일의 선결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62.7%의 학생이 통일의 주체는 남북

정부 지도자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55.0%)이 민족의식 고취를 들고 있다. 북한관에서는 북한주민의 생활 등 8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그 반응결과를 살펴보았는데 학생들은 같은 또래인 고등중학교 학생들의 생활(30.4%)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28.9%)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북한 주민 생활수준의 비교에서는 94.2%의 학생이 북한보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경제성장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북한의 경제 낙후에 따른 주민들의 궁핍한 생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 생활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는 인식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북한의 공식명칭에 대해서는 49.4%의 학생만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통일목표에 대한 인식에서는 56.8%의 학생이 북한은 궁극적으로 공산화 통일을 바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지식 원으로는 T·V, 라디오(77.8%)와 학교선생님(11.6%)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공산국가 관련 교육자료 비치 실태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다(41.4%)와 거의 없다(42.9%)라고 응답하여 비치상태가 빈약하고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관에서는 국가의 자유선택시의 태도 등 5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그 반응결과를 살펴보았는데 국가의 선택이 자유로울 경우 15.3%만이 지금의 우리나라를 택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제2의 6·25발발시 29.2%의 학생만이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에 대해서는 64.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쟁의 위협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61.9%의 학생이 전쟁의 위협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국가 당면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학생들은 환경오염(34.4%), 범죄문제(21.7%)등의 사회문제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目的 및 必要性	1
2. 研究의 制限點	3
II. 理論的 背景	4
1. 統一意識의 概念	4
2. 統一意識에 관한 研究動向	5
III. 研究의 方法	9
1. 調查道具	9
2. 標集	9
3. 資料處理	12
IV. 結果 및 論議	13
1. 統一觀	13
2. 北韓觀	41
3. 國家觀	57
V. 結論:要約 및 提言	69
參考文獻	73
英文抄錄	76
附 錄	79

表 目 次

<표 1> 통일의식 영역 및 내용	10
<표 2>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11
<표 3> 배경 변인별 자료 처리 인원	12
<표 4> 통일에 대한 관심도	14
<표 5> 한민족에 대한 인식	16
<표 6> 남북분단의 원인 인식	18
<표 7> 통일의 전망에 대한 인식	20
<표 8> 통일국가 체제에 대한 인식	22
<표 9> 통일의 필요성 인식	24
<표 10>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인식	26
<표 11>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	28
<표 12> ‘고려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	30
<표 13> 통일의 주체에 대한 인식	31
<표 14>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	33
<표 15> 통일의 저해요인 인식	35
<표 16>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37
<표 17> 공산권 국가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전망	38
<표 18> 독일 통일에 대한 인식	40
<표 19> 북한 사회에 대한 관심도	42
<표 20> 북한 동포에 대한 인식	44
<표 21> 남북한 주민생활 수준 비교	46
<표 22> 생활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식	48
<표 23> 북한의 공식명칭에 대한 인식	50
<표 24> 북한의 통일 목표에 대한 인식	52

<표 25> 북한에 대한 지식원	54
<표 26> 북한, 공산국가 관련 교육자료 실태	56
<표 27> 국가 선택 자유시의 태도	59
<표 28> 제2의 6·25 발발시 태도	61
<표 29>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64
<표 30> 전쟁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66
<표 31> 국가 당면 문제점에 대한 인식	68



I. 序 論

1. 研究의 目的 및 必要性

1945년 해방 전까지 한반도는 동일 국가체제 형태를 가진 단일민족, 단일국가였다. 그러나 해방이후 분단과 한국동란을 거치면서 근 반세기 동안 남북한 쌍방이 서로 상이한 이념체제 및 제도를 확립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이로 인하여 남북한간에는 오랫동안 교류와 대화가 단절되었고, 또한 국제적 냉전시대의 첨예한 이데올로기 대립은 남북한간에 커다란 이질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이질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고착화되어 오랫동안 경쟁·대립·적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공산국가들의 몰락과 이념·체제의 변화 및 독일통일 등의 국제정세의 변화는 한반도의 정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했으며 남한은 적극적으로 북방외교를 전개하여 과거 공산권국가와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일본, 미국 등과 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남북한 당국은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여 왔다. 그 결실로 남북고위급회담이 여러번 개최되고 남북총리간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나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통일무드의 조성과 더불어 통일을 위한 또는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에 관한 논의도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교육은 통일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교육의 오용이 통일의 크나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제도상의 혹은 정책상의 통일 노력에 병행하여 통일교육에도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우리가 통일교육을 중시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통일이라는 당위적 과제 해결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고통과 갈등, 혼란의 요소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즉 통일교육의 목적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와 통일문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 능력을 배양하고 민족공동체의식을 고양하여 통일을 앞당김과 동시에 통일이후에 나타나게 될 문화지체 현상을 최소화하여 단순한 지리상의 통일이 아닌 참다운 정신문명의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한민족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모색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¹⁾ 그러므로 통일교육이 정책상의 뒷전에 놓여 있는 통일논의와 통일접근은 비현실적이며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언젠가 이룩될 통일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핵심적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국내외 상황의 변화속에서 향후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유하고 있는 통일의식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조사해 보는 것은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내재하는 통일의식의 실태 및 경향·특징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통일교육의 전개방향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통일의식 형성의 방향과 학교통일교육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1) 추병완(1992),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새교육』, 통권 452호, 한국교육신문사, p. 172.

2. 研究의 制限點

- 1) 제주도 전 고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제주시 8개 학교, 서귀포시 6개 학교, 북제주군 4개 학교, 남제주군 4개 학교의 학생들로 한정시켜 무작위 표집(random sampling)방법에 의해 조사하였다.
- 2) 많은 통일의식의 영역 중 3개 영역에 한하여 28개 문항을 가지고 조사하였다.
- 3)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조사함에 있어 질문지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질문지법이 갖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II. 理論的 背景

1. 統一意識의 概念

본래 意識(consciousness)이라는 용어는 철학에서 認知論的 내지 現象學的 概念으로서의 인지작용 자체 또는 그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심리학이 철학에서 독립한 후에는 知·情·意를 포함하는 심리현상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다.²⁾ 세계백과대사전에서는 심리학상의 의식을 感覺, 知覺, 感情, 表象, 情緒, 意慾 등 통상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심적 현상의 총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³⁾

정치학대사전에서는 政治意識을 정치적 사상과 정치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認識, 評價, 態度의 총칭이며, 정치적 행동의 선택으로 인도하는 意見, 判斷, 印象, 感覺 등의 정신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⁴⁾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보면 박용헌은 정치의식을 政治的 諸事物과 事態에 대해서 국민이 갖는 認知的, 感情的, 行動的(意志的) 反應性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⁵⁾ 알몬드(G. A. Almond)와 버바(S. Verba)는 정치적 성향을 정치적 대상에 대한 知識과 信念(認知的 性向), 感情(情意的 性向), 意見과 判斷(評價的 性向)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⁶⁾ 스미스(Smith, Henry Boynton)는 정치적 태도를 정치적 대상에 대한 認知的, 感情的, 行動的 反應傾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⁷⁾ 이상의 意識에 관계되

2) 李載昌 外(1983), 「青少年 意識構造 및 形成背景」, 韓國教育開發院, p.22

3) 東亞出版社(1985), “意識,” 「東亞世界大百科辭典(第23卷)」 p.23.

4) 博英社, 鄭仁興外(1979), “政治意識,” 「政治學大辭典」, pp.1348~1350.

5) 朴容憲 外(1980), “現代韓國人的 政治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所, pp.301-561

6) G. A. Almond and S. Verba(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14.

7) Jeanne N. Knustson, (ed)(1973),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Jossey Bass Publishers, pp.57-60.

는 諸概念들을 종합해 보면, 의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개인 각자가 갖는 心理的 性向이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며, 또 심리적 성향을 몇개의 構成要素로 분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의식은 분단을 해소하여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한 諸方法과 手段에 대한 개인의 공통된 문화적 환경과 내적인 태도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이며 체계적인 행위의 지표 또는 가치관으로 규정할 수 있다.⁸⁾ 일반적으로 통일의식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주변의 제반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변화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意識體系이며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다. 특히 민족적 통합과 평화통일을 열망하는 統一意識은 통일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이념이나 제도상의 통합보다 그 이전에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본 조사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통일에 직접 관련된 의식인 統一觀,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國家觀·北韓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2. 統一意識에 대한 研究動向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행해진 연구는 많지 않다. 통일의식에 대한 내용도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었다.

통일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들을 보면, 이우영 등은 ‘통일·안보문제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구조’에서 통일, 안보, 대공 등에 대한 의식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조사 연구하고 이를 고등학생과 비교하고 있으며,⁹⁾ 최송범은 ‘중·고등학생에 대한 통일안보교육(실태중심)’에서 통일안보관의 정립을 위한 제언의 목적하에 반공교과서에 대

8) 任炳春(1991), “轉換期 統一意識과 統一問題 認識의 새方向,” 「大學生 統一 論文集」 統一院, p.273.

9) 李宇榮外(1977), “統一·安보問題에 대한 大學生의 意識構造,” 「統一政策」 第3券 第3號, 平和統一研究所, pp.19-43.

한 인식, 반공교수방법, 반공의 일반적 개념,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⁰⁾ 박용현 등은 현대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통일·안보의 영역 아래 공산국가에 대한 감정, 통일에 대한 의지, 통일방식에 대한 인식, 통일지연책임에 대한 인식, 북한공산집단에 대한 감정, 안보태세에 대한 인식, 안보에 대한 자신감, 젊은 세대의 반공의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¹¹⁾

김병오 등은 '영동지역 대학생의 통일교육과 교육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에서 영동지역 대학생의 통일의식을 대학생의 국가관, 북한관으로 나누어 통일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후 대학생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¹²⁾ 그리고 '전환기의 한국사회: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전환기를 맞은 현 사회의 변화속에서 20대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각 요인별로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통일의 시기, 통일의 가능성, 통일을 위하여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점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13) 전제만은 '통일문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 통일의 방법, 통일의지, 통일시기,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 등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였다.¹⁴⁾ 민병천은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통일전반에 관한 의견, 남북대화관, 통일논의에 대한 의견, 북한관, 안보관, 북방정책과 통일과제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¹⁵⁾ 또한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에서는 통일문제 일반에 관한 견해, 정부의 통일노력에 관한 견해, 남북고위급회담 등 남북대화에

10) 崔淞凡(1977), "中.高等學生에 대한 統一安보教育(實態中心)," 統一政策 第3卷 第3號, 平和統一研究所, pp80-93.

11) 朴容憲外, 前掲論文

12) 김병오외(1985), "영동지역 대학생의 統一教育과 교육개선방안," 「통일안보집」, 제2편 강릉대학 통일문제 연구소, pp.3-49.

13)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1987), "전환기의 한국사회: 국민여론조사 자료집," 한국일보사, pp.186-189.

14) 전제만(1988), "통일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

15) 민병천(1989),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의견 조사," 국토통일원 제2정책관실.

관한 견해, 북방정책 및 북한의 개방화에 관한 견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관한 견해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¹⁶⁾ 그리고 임병춘은 ‘전환기 통일의식과 통일문제 인식의 새 방향’에서 대학생의 통일의식을 통일관, 북한관, 국가관으로 분류하여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내외 상황의 변화속에서 통일후 세대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문을 통해 통일의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의식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통일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기위하여 통일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¹⁷⁾

제주도를 중심으로 실시한 연구들을 보면, 고성준은 ‘재일제주동포의 통일안보의식에 관한 서설적 연구’에서 재일제주동포를 대상으로 재일동포의 통일안보의식을 분석하고 있으며, 통일안보와 관련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 북한의 전쟁도발위험에 대한 인식, 북한공산주의사회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¹⁸⁾ 김항원은 ‘제주도 주민의 반공의식 고찰’에서 전술한 박용현등의 논문에서의 8개 문항과 동일한 제주도 주민들의 반공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22개 문항 중 8개 문항을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공산국가에 대한 감정, 공산사회의 실현 가능성, 북한사회에서의 생존여부, 통일지연책임에 대한 인식, 통일방식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의지, 국가동일관, 안보에 관한 자신감 등이다.¹⁹⁾ 제주대학 통일안보 연구소는 ‘제주도민의 의식구조 연구조사’에서 통일안보에 대한 일반의식과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에 관련된 의식 등 두 차원에서 제주도민의 통일안보의식을 파악하고 있다.²⁰⁾ 김치홍은 ‘제주도 중·고등학생의 통일안보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제주도 중·고등학생들의 통일안보 의식을 42개 문항을 중

16) 국토통일원·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 “통일정책추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17) 任炳春, 前掲論文, pp.178-197.

18) 高性俊(1980), “在日濟州同胞의 統一安보意識에 관한 序說의 研究,” 『濟州大學 論文集』 第11輯, pp.267-301.

19) 金恒元, 前掲論文, pp.298-318.

20) 濟州大學 統一安보 研究所(1979), “濟州道民의 意識構造調査研究,” pp.239-296.

심으로 행동차원에서는 태도구성이론에 의하여 인지, 정의, 의지로 분류하였으며, 내용차원에서는 공산주의, 북한, 통일, 안보의 4개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²¹⁾ 김희는 ‘제주도 국민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에서 27개문항을 중심으로 통일관, 북한관, 국가관 등 3개 영역으로 구분 아동들의 통일의식을 분석하였다.²²⁾



-
- 21) 金姬(1992), “濟州道 國民學生들의 統一意識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p. 6.
- 22) 金致洪(1993), “濟州道 中. 高等學生의 安保 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pp. 25.

Ⅲ. 研究의 方法

본 연구는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일의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통일의식의 개념과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조사연구는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1.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통일의식을 통일관, 북한관, 국가관의 3개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질문지 문항은 응답자의 배경에 관한 문항 4개, 통일의식구조에 관한 내용문항 28개 총 32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통일의식에 관한 내용은 <표1>과 같이 3개 영역 28개 개념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제작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주제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 50명에게 예비조사(1993.10.27)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질문지의 문항의 유형은 2-7개의 폐쇄된 선택지 중에서 응답하도록한 선택형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질문지의 문항구성 내용을 보면 <표1>과 같다.

2. 표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관내 고등학교를 인문, 실업계열로 구분하여 9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 조사는 1993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각 학교의 사회과 및 담임교사의 협조로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조사결과는 <표2>에서 제시된 바와 같으며 회수된 질문지는 888매인데 회수율은 98.67%이었다.

질문지의 응답결과를 통계처리하기 위하여 회수된 질문지를 검토, 응답이 누락되거나 한 분항에 2개 이상의 응답을 한 62부를 통계에서 제외시켜 실제 연구대상은 826명이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3>과 같다.

<표1> 통일외식 영역 및 내용

영역	내용
통일관	통일에 대한 관심도 한민족에 대한 인식 남북분단의 원인 통일에 대한 전망 통일국가의 이념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통일의 필요성 인식 우리나라의 통일방안 북한의 통일방안 통일의 주체에 대한 인식 통일의 선결과제 통일의 장애요인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동구권 국가의 변화 통일독일에 대한 인식
북한관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도 북한동포에 대한 인식 남북생활 수준비교 문화적 이질감에 대한 인식 북한의 공식명칭 북한의 통일목표 인식 북한사회에 대한 지식원 북한관련 교육자료의 실태
국가관	국가 자유선택 가능시 태도 국가위기(제2의 6.25도발)시 태도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국가위기에 대한 인식 국가의 당면과제

<표2>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지 역 (학교수)	구 분	질문지 배부수	회수된수	제외수	유효한수	회수율(%)	
제 주 시 (8)	인문	남	140	138	9	129	98.57
		여	140	140	10	130	100.00
	실업	남	50	47	2	45	94.00
		여	50	49	4	45	98.00
서귀포시 (6)	인문	남	80	78	6	72	97.50
		여	80	80	7	73	100.00
	실업	남	40	40	4	36	100.00
		여	40	39	2	37	97.50
북제주군 (4)	인문	남	35	35	3	32	100.00
		여	35	34	4	30	97.14
	실업	남	35	34	2	32	97.14
		여	35	35	1	34	100.00
남제주군 (4)	인문	남	35	35	2	33	100.00
		여	35	35	4	31	100.00
	실업	남	35	35	1	34	100.00
		여	35	34	1	33	97.14
합 계		900	888	62	826	98.67	

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제주대학교 진산실의 도움을 받아 SPSS-X에 의해 통계 처리 되었다. 산출자료는 첫째, 각 변인별 응답내용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각 분항에 대한 응답자의 전반적인 반응분포를 살펴보았다. 둘째, 응답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이 통계적으로 有意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χ^2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표3> 배경 변인별 자료 처리 인원

배 경 변 인	변 인 구 분	변 인 크 기	변인구성비(%)	계
1. 성 별	남	406	49.2	826
	여	420	50.8	
2. 계 열	인 문	525	63.6	826
	실 업	301	36.4	
3. 생활정도	상	88	10.7	826
	중	647	78.3	
	하	91	11.0	
4. 직 업 별	농·수산업	349	42.3	826
	상업및서비스업	213	25.8	
	회 사 원	65	7.9	
	공 무 원 (교육공무원)	94	11.4	
	기 타	105	12.7	

IV. 結果 및 論議

결과 및 논의는 문항 하나 하나에 대해서 차례대로 다룬 분석결과를 논의하려고 한다. 먼저 전체 반응결과를 살펴본 후에 배경변인별 백분비(%)를 가지고 논의하려고 하며, 배경변인별로 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그리고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해석하려고 한다.

1. 통일관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일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15개 문항이 설정되었는데, 크게 통일에 대한 관심도, 통일방안과 통일주체에 대한 인식, 통일 여건 조성과 통일 논의 상황인식 등이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일에 대한 관심도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 학교나 기타 모임에서 통일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4>에 따르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매우 많다 (1.1%) ② 많다(2.8%) ③ 모르겠다(14.0%) ④ 약간 있다(58.2%) ⑤ 전혀 없다(23.8%)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이 약간 있거나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로는 $P < 0.001$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경우는 남학생(30.3%)이 여학생(17.6%)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4〉 통일에 대한 관심도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826 (100.0)				9 (1.1)	23 (2.8)	116 (14.0)	481 (58.2)	197 (23.8)
성 별	남	406 (49.2)	33.38	4	**** 0.0000	7 (1.7)	7 (1.7)	67 (16.5)	202 (49.8)	123 (30.3)
	여	420 (50.8)				2 (0.5)	16 (3.8)	49 (11.7)	279 (66.4)	74 (17.6)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12.43	4	* 0.0144	7 (1.3)	15 (2.9)	63 (12.0)	327 (62.3)	13 (21.5)
	실업	301 (36.4)				2 (0.7)	8 (2.7)	53 (17.6)	154 (51.2)	84 (27.9)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13.84	8	0.0860	1 (1.1)	7 (8.0)	8 (9.1)	53 (60.2)	19 (21.6)
	중	647 (78.3)				7 (1.1)	12 (1.9)	95 (14.7)	379 (58.6)	154 (23.8)
	하	91 (11.0)				1 (1.1)	4 (4.4)	13 (14.3)	49 (53.8)	24 (26.4)
보 호 자 직 업 별	농수산업	349 (42.3)	21.12	16	0.1738	2 (0.6)	10 (2.9)	54 (15.5)	208 (59.6)	75 (21.5)
	상업서비스업	213 (25.8)				3 (1.4)	5 (2.3)	28 (13.1)	128 (60.1)	49 (23.0)
	회사원	65 (7.9)				2 (3.1)	2 (3.1)	12 (18.5)	41 (63.1)	8 (12.3)
	공무원 (교육공무원)	94 (11.4)				1 (1.1)	4 (4.3)	12 (12.8)	49 (52.1)	28 (29.8)
	기타	105 (12.7)				1 (1.0)	2 (1.9)	10 (9.5)	55 (52.4)	37 (35.2)

(* P < 0.05, **** P < 0.001)

학교계열별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문계 학생(62.3%)이 실업계 학생(51.2%)보다 조금이라도 통일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는 비중이 높다 하겠다. 생활정도별·보호자직업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2) 한민족에 대한 인식

같은 핏줄이면서도 오랫동안 만날 수 없었던 북한과 우리의 제 1 우방국으로 인식되어온 미국 중 어느쪽에 더 우호적인 감정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해 봄으로써 한민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과 미국이 축구경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편을 응원하겠습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5>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북한(60.2%) ② 미국(11.6%) ③ 잘 모르겠다(14.8%) ④ 둘 다 똑같이 응원하겠다(3.8%) ⑤ 둘 다 응원하지 않겠다(9.7%)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남녀학생 모두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데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남학생(66.5%)이 여학생(54.0%)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P < 0.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계열별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면서 인문계 학생(63.0%)이 실업계 학생(55.1%)보다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쪽에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질문으로 선행 연구된 국민학생을 대상으로한 김희²³⁾의 조사에서는 전체응답자의 52.5%가 그리고 대학생들 대상으로한 김용승²⁴⁾의 조사에서는 전체응답자의 90%가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답하였는데 본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교육의

23) 金姬(1993), 前掲書, p.15.

24) 김용승(1990), “대학생의 통일인식과 통일문제 인식의 방향”, 「대학생통일논문집」 제9권, (통일원), P.96.

〈표5〉 한민족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826 (100.0)				497 (60.2)	96 (11.6)	122 (14.8)	31 (3.8)	80 (9.7)
성별	남	406 (49.2)	21.49	4	**** 0.0003	270 (66.5)	49 (12.1)	44 (10.8)	16 (3.9)	27 (6.7)
	여	420 (50.8)				227 (54.0)	47 (11.2)	78 (18.6)	15 (3.6)	53 (12.6)
학교계열별	인문	525 (63.6)	10.94	4	* 0.0272	331 (63.0)	60 (11.4)	69 (13.1)	13 (2.5)	52 (9.9)
	실업	301 (36.4)				166 (55.1)	36 (12.0)	53 (17.6)	18 (6.0)	28 (9.3)
생활 정도별	상	88 (10.7)	13.97	8	0.0825	46 (52.3)	17 (19.3)	14 (15.9)	1 (1.1)	10 (11.4)
	중	647 (78.3)				404 (62.4)	64 (9.9)	91 (14.1)	26 (4.0)	62 (9.6)
	하	91 (11.0)				47 (51.6)	15 (16.5)	17 (18.7)	4 (4.4)	8 (8.8)
보호 자 직 업 별	농수산업	349 (42.3)	6.64	16	0.9797	213 (61.0)	41 (11.7)	51 (14.6)	15 (4.3)	29 (8.3)
	상업 서비스업	213 (25.8)				126 (59.2)	22 (10.3)	36 (16.9)	7 (3.3)	22 (10.3)
	회사원	65 (7.9)				41 (63.1)	8 (12.3)	9 (13.8)	1 (1.5)	6 (9.2)
	공무원 (교육공무원)	94 (11.4)				59 (62.8)	9 (9.6)	12 (12.8)	4 (4.3)	10 (10.6)
	기타	105 (12.7)				58 (55.2)	16 (15.2)	14 (13.3)	4 (3.8)	13 (12.4)

(* P < 0.05, **** P < 0.001)

정도가 높아질수록,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북한에 대한 한 민족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남북 분단의 원인 인식

한반도의 분단 원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남북 분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6>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남한 집권층의 고집 때문이다(2.1%) ② 북한 집권층의 고집 때문이다(37.7%) ③ 미·소의 냉전정책 때문이다(46.7%) ④ 잘 모르겠다(13.6%)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들은 남북 분단의 원인을 북한 집권층의 고집과 미·소의 냉전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행 연구 국민학생을 대상으로한 김희²⁵⁾의 조사에서는 남북분단의 원인으로 북한 집권층의 고집(64.2%), 미·소의 이해관계(22.0%)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임 병춘²⁶⁾의 조사에서는 북한 집권층의 고집(3.3%), 미·소의 이해관계(52.8%)에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교육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민족내부의 갈등과 남북집권층의 고집등 내적 측면보다 미·소의 냉전체제 및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외적측면에서 분단의 원인을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학교 계열별과 보호자 직업별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문계 학생(50.5%)이 실업계 학생(40.2%)보다 남북분단의 원인이 미·소의 냉전정책 때문이라

25) 金姬, 前掲書, pp.19~20.

26) 任炳春(1991), 前掲書, p.207.

<표6> 남북분단의 원인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826 (100.0)				17 (2.1)	311 (37.7)	386 (46.7)	112 (13.6)
성 별	남	406 (49.2)	5.35	3	0.1478	11 (2.7)	163 (40.1)	175 (43.1)	57 (14.0)
	여	420 (50.8)				6 (1.4)	148 (35.2)	211 (50.2)	55 (13.1)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12.25	3	* 0.0066	14 (2.7)	181 (34.5)	265 (50.5)	65 (12.4)
	실업	301 (36.4)				3 (1.0)	130 (43.2)	121 (40.2)	47 (15.6)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3.34	6	0.7654	2 (2.3)	39 (44.3)	37 (42.0)	10 (11.4)
	중	647 (78.3)				13 (2.0)	241 (37.2)	307 (47.4)	86 (13.3)
	하	91 (11.0)				2 (2.2)	31 (34.1)	42 (46.2)	16 (17.6)
보 호 자 직 업 별	농 수 산 업	349 (42.3)	26.70	12	* 0.0085	10 (2.9)	144 (41.3)	142 (40.7)	53 (15.2)
	상 업 서 비 스 업	213 (25.8)				1 (0.5)	77 (36.2)	109 (51.2)	26 (12.2)
	회 사 원	65 (7.9)				4 (6.2)	27 (41.5)	23 (35.4)	11 (16.9)
	공 무 원 (<small>교육공무원</small>)	94 (11.4)				2 (2.1)	30 (31.9)	53 (56.4)	9 (9.6)
	기 타	105 (12.7)					33 (31.4)	59 (56.2)	13 (12.4)

(* P < 0.05)

는 데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보호자 직업별에 따라서는 상업,서비스업(51.2%), 공무원(56.4%), 기타직업(56.2%)이 남북분단의 원인이 미·소의 냉전정책에 있다는데에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농·수산업(40.7%), 회사원(35.4%)은 낮게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4) 통일의 전망에 대한 인식

통일독일의 과정을 지켜보며, 그리고 탈냉전하의 주변정세의 화해무드는 우리 국민들의 통일외지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통일의 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남북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7>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다(22.5%) ② 2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다(17.1%) ③ 2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18.2%) ④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21.8%) ⑤ 잘 모르겠다(20.5%)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문항으로 선행연구된 김희27)와 임병춘28)의 조사에서 통일의 가능시기에 대해 각각 2.5%, 5.1%만이 통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를 보인것에 비해 제주도 고등학생들은 이보다 훨씬 더 통일의 전망에 대해 비관적 태도(21.8%)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에 따라 $P < 0.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0년 이내에의 단기적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남자(27.8%)가 여자(17.4%)보다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밖의 다른 배경 변인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27) 金姬, 前掲書, p.24.

28) 任炳春, 前掲書, p.184.

〈표7〉 통일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826 (100.0)				186 (22.5)	141 (17.1)	150 (18.2)	180 (21.8)	169 (20.5)
성별	남	406 (49.2)	16.82	4	*** 0.0021	113 (27.8)	74 (18.2)	67 (16.5)	82 (20.2)	70 (17.2)
	여	420 (50.8)				73 (17.4)	67 (16.0)	83 (19.8)	98 (23.3)	99 (23.6)
학교계열별	인문	525 (63.6)	6.78	4	0.1482	117 (22.3)	101 (19.2)	99 (18.9)	108 (20.6)	100 (19.0)
	실업	301 (36.4)				69 (22.9)	40 (13.3)	51 (16.9)	72 (23.9)	69 (22.9)
생활 정도별	상	88 (10.7)	8.83	8	0.3570	23 (26.1)	17 (19.3)	16 (18.2)	20 (22.7)	12 (13.6)
	중	647 (78.3)				145 (22.4)	112 (17.3)	110 (17.0)	139 (21.5)	141 (21.8)
	하	91 (11.0)				18 (19.8)	12 (13.2)	24 (26.4)	21 (23.1)	16 (17.6)
보호 직업 별	농수산업	349 (42.3)	20.57	16	0.1957	88 (25.2)	52 (14.9)	56 (16.0)	74 (21.2)	79 (22.6)
	상업 서비스업	213 (25.8)				46 (21.6)	41 (19.2)	35 (16.4)	49 (23.0)	42 (19.7)
	회사원	65 (7.9)				14 (21.5)	12 (18.5)	19 (29.2)	8 (12.3)	12 (18.5)
	공무원 (교육공무원)	94 (11.4)				13 (13.8)	20 (21.3)	16 (17.0)	25 (26.6)	20 (21.3)
	기타	105 (12.7)				25 (23.8)	16 (15.2)	24 (22.9)	24 (22.9)	16 (15.2)

(*** P < 0.005)

5) 통일 국가 체제에 대한 인식

통일 이후의 국가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통일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8>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자유 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52.4%) ②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2.8%) ③ 이념과 체제에 상관없이 통일부터 해야 한다(1.8%) ④ 쌍방이 절충한 이념과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39.1%). ⑤ 잘 모르겠다(3.9%)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 결과를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의 학생(52.4)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39.1%의 학생들이 쌍방이 절충한 새로운 이념과 체제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40%정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남북한의 국가체제가 아닌 혼합절충 내지 새로운 이념의 국가체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남북한이 40년 이상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하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현실과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로는 $P < 0.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학생(53.3%)이 남학생(51.5%)보다 자유민주주의이념과 체제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조금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활정도별로 보면 중(51.5%), 하(52.7%)수준보다 상(59.1%)수준의 학생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호자직업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6) 통일의 필요성 인식

〈표8〉 통일국가 체제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826 (100.0)				433 (52.4)	23 (2.8)	15 (1.8)	323 (39.1)	32 (3.9)
성별	남	406 (49.2)	15.88	4	*** 0.0032	209 (51.5)	9 (2.2)	11 (2.7)	152 (37.4)	25 (6.2)
	여	420 (50.8)				224 (53.3)	14 (3.3)	4 (1.0)	171 (40.7)	7 (1.7)
학교계열별	인문	525 (63.6)	6.04	4	0.1964	270 (51.4)	17 (3.2)	10 (1.9)	213 (40.6)	15 (2.9)
	실업	301 (36.4)				163 (54.2)	6 (2.0)	5 (1.7)	110 (36.5)	17 (5.6)
생활 정도별	상	88 (10.7)	10.19	8	0.2517	52 (59.1)	1 (1.1)	4 (4.5)	26 (29.5)	5 (5.7)
	중	647 (78.3)				333 (51.5)	18 (2.8)	10 (1.5)	263 (40.6)	23 (3.6)
	하	91 (11.0)				48 (52.7)	4 (4.4)	1 (1.1)	34 (37.4)	4 (4.4)
보호 자 직 업 별	농수산업	349 (42.3)	13.83	16	0.6115	185 (53.0)	9 (2.6)	3 (0.9)	136 (39.0)	16 (4.6)
	상업 서비스업	213 (25.8)				112 (52.6)	4 (1.9)	5 (2.3)	86 (40.4)	6 (2.8)
	회사원	65 (7.9)				35 (53.8)	4 (6.2)	2 (3.1)	23 (35.4)	1 (1.5)
	공무원 (교육공무원)	94 (11.4)				43 (45.7)	3 (3.2)	1 (1.1)	42 (44.7)	5 (5.3)
	기타	105 (12.7)				58 (55.2)	3 (2.9)	4 (3.8)	36 (34.3)	4 (3.8)

(*** P < 0.005)

통일을 이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꼭 통일이 이룩되어야 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9>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많이 느낀다(26.4%) ② 조금 느낀다(47.5%) ③ 잘 모르겠다(6.2%) ④ 못 느낀다(16.3%) ⑤ 전혀 못느낀다(3.6%)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문항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선행 연구된 허준혁²⁹⁾의 조사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낀다(54.57%), 보통으로 느낀다(33.41%)라고 응답하여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조금 느낀다”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분단의 기간이 길어지고 남북 이질화의 심화 등으로 꼭 통일을 해야겠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점점 약해져서 분단 고정화 묵인현상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에 따라 $P < 0.005$ 의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76.6%)이 여학생(71.2%)보다 통일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보호자직업별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상업·서비스업(80.7%), 기타(76.2%), 회사원(72.3%), 농·수산업(71.4%), 공무원(65.9%) 순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계열별, 생활정도별에 따라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7)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정도는 통일을 향한 개개인의 기대에 따라 달라질

29) 허준혁(1985), “통일문제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구조 연구,” 「대학생 통일논문집」, 국토통일원, p.14.

〈표9〉 통일 필요성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826 (100.0)				218 (26.4)	392 (47.5)	51 (6.2)	135 (16.3)	30 (3.6)
성 별	남	406 (49.2)	17.67	4	*** 0.0014	131 (32.3)	180 (44.3)	27 (6.7)	53 (13.1)	15 (3.7)
	여	420 (50.8)				87 (20.7)	212 (50.5)	24 (5.7)	82 (19.5)	15 (3.6)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5.99	4	0.1997	141 (26.9)	242 (46.1)	27 (5.1)	95 (18.1)	20 (3.8)
	실업	301 (36.4)				77 (25.6)	150 (49.8)	24 (8.0)	40 (13.3)	10 (3.3)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14.55	8	0.0686	22 (25.0)	46 (52.3)	2 (2.3)	12 (13.6)	6 (6.8)
	중	647 (78.3)				168 (26.0)	303 (46.8)	49 (7.6)	106 (16.4)	21 (3.2)
	하	91 (11.0)				28 (30.8)	43 (47.3)		17 (18.7)	3 (3.3)
보 호 자 직 업 별	농수산업	349 (42.3)	27.85	16	* 0.0329	106 (30.4)	143 (41.0)	26 (7.4)	62 (17.8)	12 (3.4)
	상업서비스업	213 (25.8)				55 (25.8)	117 (54.9)	10 (4.7)	22 (10.3)	9 (4.2)
	회사원	65 (7.9)				12 (18.5)	35 (53.8)	6 (9.2)	12 (18.5)	
	공무원 (교육공무원)	94 (11.4)				21 (22.3)	41 (43.6)	5 (5.3)	21 (22.3)	6 (6.4)
	기타	105 (12.7)				24 (22.9)	56 (53.3)	4 (3.8)	18 (17.1)	3 (2.9)

(* P < 0.05, *** P < 0.005)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인식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 통일이 되어야 한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0>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단일 민족이므로(22.3%) ② 이산 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18.5%) ③ 우리 민족이 더 잘 살기 위하여(39.3%) ④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15.6%) ⑤ 잘 모르겠다(4.2%)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 단일 민족이므로(22.3)’ 보다 ‘ 우리 민족이 더 잘 살기 위하여(39.3)’ 에 더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유사한 문항의 선행 연구 국민학생을 대상으로한 김희³⁰⁾의 조사에서는 ‘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39.7%) ’ 라는 답항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임병춘³¹⁾의 조사에서는 ‘ 민족의 동질성 회복(43.1%)’ 과 ‘ 민족의 번영과 발전(41.2%)’ 에 많은 응답을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인지 발달 수준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에 따라 $P < 0.0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44.1%)이 여학생(34.8%)보다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로 ‘ 우리 민족이 더 잘 살기 위하여 ’ 에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학교계열별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문계 학생들은 ‘ 단일민족이므로(23.2%)’ 와 ‘ 잘 살기 위하여(41.7%)’ 에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실업계 학생들은 ‘ 이산가

30) 金姬, 前掲書, p.28.

31) 任炳春, 前掲書, p.194.

〈표10〉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826 (100.0)				184 (22.3)	153 (18.5)	325 (39.3)	129 (15.6)	35 (4.2)
성별	남	406 (49.2)	23.21	4	**** 0.0001	97 (23.9)	53 (13.1)	179 (44.1)	55 (13.5)	22 (5.4)
	여	420 (50.8)				87 (20.7)	100 (23.8)	146 (34.8)	74 (17.6)	13 (3.1)
학교계열별	인문	525 (63.6)	13.11	4	* 0.0107	122 (23.2)	79 (15.0)	219 (41.7)	80 (15.2)	25 (4.8)
	실업	301 (36.4)				62 (20.6)	74 (24.6)	106 (35.2)	49 (16.3)	10 (3.3)
생활 정도별	상	88 (10.7)	14.41	8	0.0717	14 (15.9)	14 (15.9)	37 (42.0)	15 (17.0)	8 (9.1)
	중	647 (78.3)				157 (24.3)	120 (18.5)	244 (37.7)	102 (15.8)	24 (3.7)
	하	91 (11.0)				13 (14.3)	19 (20.9)	44 (48.4)	12 (13.2)	3 (3.3)
보호 자 직 업 별	농수산업	349 (42.3)	16.02	16	0.0717	81 (23.2)	70 (20.1)	118 (33.8)	60 (17.2)	20 (5.7)
	상업 서비스업	213 (25.8)				44 (20.7)	31 (14.6)	97 (45.5)	35 (16.4)	6 (2.8)
	회사원	65 (7.9)				12 (18.5)	11 (16.9)	28 (43.1)	12 (18.5)	2 (3.1)
	공무원 (교육공무원)	94 (11.4)				22 (23.4)	20 (21.3)	38 (40.4)	11 (11.7)	3 (3.2)
	기타	105 (12.7)				25 (23.8)	21 (20.0)	44 (41.9)	11 (10.5)	4 (3.8)

(* P < 0.05, **** P < 0.001)

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24.6%)’ 와 ‘ 잘 살기 위하여(35.2%)’ 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호자직업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나 타 직종에 비해 농·수산업(33.8%)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로 ‘우리 민족이 더 잘 살기 위하여’ 에 낮게 더 반응하고 있다. 생활정도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8)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인지도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1>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확실히 알고 있다(2.3%) ② 알고 있다(45.9%) ③ 잘 모르겠다(43.2%) ④ 모르고 있다(6.1%) ⑤ 전혀 모르고 있다(3.4%)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51.8%)의 학생이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 및 당위론에 대한 인식정도 등은 높은 반면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형식에만 그쳐 보다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과 학교계열별에 따라 각각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자(50.3%)가 남자(44.4%)보다, 인문계 학생(49.1%)이 실업계 학생(44.2%)보다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정도별과 보호자직업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생활정도가 상(51.1%) 수준인 경우가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에 대

〈표11〉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826 (100.0)				19 (2.3)	372 (45.9)	357 (43.2)	50 (6.1)	28 (3.4)
성 별	남	406 (49.2)	10.03	4	* 0.0399	12 (3.0)	168 (41.4)	179 (44.1)	27 (6.7)	20 (4.9)
	여	420 (50.8)				7 (1.7)	204 (48.6)	178 (42.4)	23 (5.5)	8 (1.9)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12.40	4	* 0.0146	9 (1.7)	249 (47.4)	223 (42.5)	23 (4.4)	21 (4.0)
	실업	301 (36.4)				10 (3.3)	123 (40.9)	134 (44.5)	27 (9.0)	7 (2.3)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9.62	8	0.2927	1 (1.1)	44 (50.0)	39 (44.3)	3 (3.4)	1 (1.1)
	중	647 (78.3)				16 (2.5)	292 (45.1)	279 (43.1)	40 (6.2)	20 (3.1)
	하	91 (11.0)				2 (2.2)	36 (39.6)	39 (42.9)	7 (7.7)	7 (7.7)
보 호	농 수 산 업	349 (42.3)				6 (1.7)	153 (43.8)	152 (43.6)	22 (6.3)	16 (4.6)
	상 업 서 비 스 업	213 (25.8)				5 (2.3)	101 (47.4)	95 (44.6)	7 (3.3)	5 (2.3)
자 직 업 별	회 사 원	65 (7.9)	11.91	16	0.7500	2 (3.1)	31 (47.7)	23 (35.4)	7 (10.8)	2 (3.1)
	공 무 원 (교육공무원)	94 (11.4)				3 (3.2)	43 (45.7)	41 (43.6)	5 (5.3)	2 (2.1)
	기 타	105 (12.7)				3 (2.9)	44 (41.9)	46 (43.8)	9 (8.6)	3 (2.9)

(* P < 0.05)

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 ‘고려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 연방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2>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확실히 알고 있다(1.2%) ② 알고 있다(22.9%) ③ 잘 모르겠다(47.5%) ④ 모르고 있다(14.6%) ⑤ 전혀 모르고 있다(13.8%)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75.9%)이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 연방제’에 대하여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앞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보다도 훨씬 낮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있어서 막연한 감상적인 통일교육이 되어서는 안되고 통일의 실천과정인 남·북의 통일방안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비교·비판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과 학교계열별에 따라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27.3%) 그리고 인문계 학생(27.0%)이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직업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상업·서비스업(31.5%)이 타직종에 비해 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0) 통일노력의 주체에 대한 인식

통일의 주체에 대하여 어떤 인식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표12〉 ‘고려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826 (100.0)				10 (1.2)	189 (22.9)	392 (47.5)	121 (14.6)	114 (13.8)
성 별	남	406 (49.2)	14.22	4	* 0.0066	7 (1.7)	104 (25.6)	191 (47.0)	43 (10.6)	61 (15.0)
	여	420 (50.8)				3 (0.7)	85 (20.2)	201 (47.9)	78 (18.6)	53 (12.6)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10.05	4	* 0.0395	9 (1.7)	133 (25.3)	245 (46.7)	68 (13.0)	70 (13.3)
	실업	301 (36.4)				1 (0.3)	56 (18.6)	147 (48.8)	53 (17.6)	44 (14.6)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9.04	8	0.3388	3 (3.4)	24 (27.3)	40 (45.5)	10 (11.4)	11 (12.5)
	중	647 (78.3)				6 (0.9)	144 (22.3)	313 (48.4)	99 (15.3)	85 (13.1)
	하	91 (11.0)				1 (1.1)	21 (23.1)	39 (42.9)	12 (13.2)	18 (19.8)
보 호 자 직 업 별	농 수 산 업	349 (42.3)	19.37	16	0.2499	3 (0.9)	64 (18.3)	167 (47.9)	58 (16.6)	57 (16.3)
	상 업 서 비 스 업	213 (25.8)				4 (1.9)	63 (29.6)	95 (44.6)	24 (11.3)	27 (12.7)
	회 사 원	65 (7.9)				1 (1.5)	16 (24.6)	32 (49.2)	10 (15.4)	6 (9.2)
	공 무 원 (교육공무원)	94 (11.4)				2 (2.1)	20 (21.3)	49 (52.1)	15 (16.0)	8 (8.5)
	기 타	105 (12.7)					26 (24.8)	49 (46.7)	14 (13.3)	16 (15.2)

(* P < 0.05)

〈표13〉 통일 의 주체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826 (100.0)				21 (2.5)	89 (10.8)	518 (62.7)	55 (6.7)	56 (6.8)	18 (2.2)	69 (8.4)
성별	남	406 (49.2)	15.53	6	* 0.0165	11 (2.7)	40 (9.9)	238 (58.6)	35 (8.6)	28 (6.9)	14 (3.4)	40 (9.9)
	여	420 (50.8)				10 (2.4)	49 (11.7)	280 (66.7)	20 (4.8)	28 (6.7)	4 (1.0)	29 (6.9)
학교계열별	인문	525 (63.6)	12.57	6	0.0504	14 (2.7)	60 (11.4)	332 (63.2)	43 (8.2)	30 (5.7)	10 (1.9)	36 (6.9)
	실업	301 (36.4)				7 (2.3)	29 (9.6)	186 (61.8)	12 (4.0)	26 (8.6)	8 (2.7)	33 (11.)
생활 장도별	상	88 (10.7)	9.54	12	0.6561	3 (3.4)	11 (12.5)	56 (63.6)	6 (6.8)	6 (6.8)	2 (2.3)	4 (4.5)
	중	647 (78.3)				16 (2.5)	67 (10.4)	408 (63.1)	46 (7.1)	39 (6.0)	13 (2.0)	58 (9.0)
	하	91 (11.0)				2 (2.2)	11 (12.1)	54 (59.3)	3 (3.3)	11 (12.1)	3 (3.3)	7 (7.7)
보 자 직 업 별	농수산업	349 (42.3)	20.92	24	0.6433	8 (2.3)	32 (9.2)	222 (63.6)	25 (7.2)	20 (5.7)	7 (2.0)	35 (10.)
	호상서비스업	213 (25.8)				6 (2.8)	25 (11.7)	131 (61.5)	8 (3.8)	18 (8.5)	6 (2.8)	19 (8.9)
	회사원	65 (7.9)				1 (1.5)	11 (16.9)	42 (64.6)	3 (4.6)	4 (6.2)	2 (3.1)	2 (3.1)
	공무원	94 (11.4)				3 (3.2)	12 (12.8)	61 (64.9)	8 (8.5)	5 (5.3)		5 (5.3)
	기타	105 (12.7)				3 (2.9)	9 (8.6)	62 (59.0)	11 (10.5)	9 (8.6)	3 (2.9)	8 (7.6)

(* P < 0.05)

하여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누가 먼저 해야 합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3>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남한 정부 지도자(2.5%) ② 북한 정부 지도자(10.8%) ③ 남북정부지도자 모두(62.7%) ④ 남한 일반사람들(6.7%) ⑤ 북한 일반사람들(6.8%) ⑥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2.2%) ⑦ 잘 모르겠다(8.4%)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학생(62.7%)이 통일노력의 주체는 남·북 정부지도자 모두가 되어야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58.6%)보다 여학생(66.7%)이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남북 정부지도자 모두가 하여야 한다는데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배경변인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11)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을 주도할수 있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을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표14>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군사력 증강(4.0%) ② 민족의식 고취(55.0%) ③ 이데올로기(이념)교육(13.8%) ④ 남한내의 민주화(5.0%) ⑤ 대외적 외교관계(16.2%) ⑥ 기타(6.1%)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의 학생(55.0%)이 통일을 위해서 선결해야할 과제로 민족의식 고취를 들고 있다. 이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어느 다른 요소보다도 통일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3.8%의 학생이 이데올로기(이념)교육을 들

〈표14〉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826 (100.0)				33 (4.0)	454 (55.0)	114 (13.8)	41 (5.0)	134 (16.2)	50 (6.1)
성 별	남	406 (49.2)	10.38	5	0.0653	21 (5.2)	206 (50.7)	55 (13.5)	19 (4.7)	75 (18.5)	30 (7.4)
	여	420 (50.8)				12 (2.9)	248 (59.0)	59 (14.0)	22 (5.2)	59 (14.0)	20 (4.8)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10.94	5	0.0526	24 (4.6)	299 (57.0)	66 (12.6)	26 (5.0)	73 (13.9)	37 (7.0)
	실업	301 (36.4)				9 (3.0)	155 (51.5)	48 (15.9)	15 (5.0)	61 (20.3)	13 (4.3)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6.26	10	0.7929	5 (5.7)	49 (55.7)	9 (10.2)	3 (3.4)	14 (15.9)	8 (9.1)
	중	647 (78.3)				26 (4.0)	359 (55.5)	88 (13.6)	33 (5.1)	104 (16.1)	37 (5.7)
	하	91 (11.0)				2 (2.2)	46 (50.5)	17 (18.7)	5 (5.5)	16 (17.6)	5 (5.5)
보 호 자 직 업 별	농수산업	349 (42.3)	21.85	20	0.3488	18 (5.2)	195 (55.9)	44 (12.6)	17 (4.9)	53 (15.2)	22 (6.3)
	상업서비스업	213 (25.8)				9 (4.2)	114 (53.5)	27 (12.7)	10 (4.7)	38 (17.8)	15 (7.0)
	회사원	65 (7.9)				1 (1.5)	35 (53.8)	12 (18.5)	3 (4.6)	11 (16.9)	3 (4.6)
	공무원 (교육공무원)	94 (11.4)				4 (4.3)	54 (57.4)	14 (14.9)	7 (7.4)	7 (7.4)	8 (8.5)
	기타	105 (12.7)				1 (1.0)	56 (53.3)	17 (16.2)	4 (3.8)	25 (23.8)	2 (1.9)

고 있는데 이는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배경변인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성별에 따라 여학생(59.0%)이 남학생(50.7%)보다 그리고 학교계열별로 인문계학생(57.0%)이 실업계학생(51.5%)보다 통일의 선결과제가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것이라는 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 통일의 저해요인 인식

통일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이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5>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남북한의 이념대립(38.0%) ②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이해관계(17.1%) ③ 남북 상호간 통일의지의 빈약(14.5%) ④ 남북한의 상호불신(18.9%) ⑤ 남한정부의 노력부족(1.0%) ⑥ 북한 정부의 노력부족(10.5%)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통일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남북한의 이념대립(38.0%)을 들고 있는데 이는 유사한 문항을 가지고 선행 연구된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임병춘³²⁾의 조사에서 통일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을 남북한 상호불신(29.9%), 사상체제의 대립(15.1%)이라고 하고 있어서 본 조사연구와 상이함을 보이고 있으나, 민족의식의 측면에서 남북한 내부에 통일의 저해요인이 잠재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P < 0.001$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학생(41.7%)이 남학생(34.2%)보다 통일의 저해요인이 남북한의 이념 대립이라는데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의 조사 ‘통일의 주체에 대한 인식’ 에서도 나타난 반응결과와 유사하게 각

32) 任炳春, 前掲書, p. 207.

<표15> 통일 의 저해요인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826 (100.0)				314 (38.0)	141 (17.1)	120 (14.5)	156 (18.9)	8 (1.0)	87 (10.5)
성별	남	406 (49.2)	31.33	5	**** 0.0000	139 (34.2)	76 (18.7)	50 (12.3)	71 (17.5)	7 (1.7)	63 (15.5)
	여	420 (50.8)				175 (41.7)	65 (15.5)	70 (16.7)	85 (20.2)	1 (0.2)	24 (5.7)
학교계열별	인문	525 (63.6)	9.78	5	0.0816	193 (36.8)	88 (16.8)	72 (13.7)	114 (21.7)	3 (0.6)	55 (10.5)
	실업	301 (36.4)				121 (40.2)	53 (17.6)	48 (15.9)	42 (14.0)	5 (1.7)	32 (10.6)
생활 정도별	상	88 (10.7)	13.30	10	0.2071	36 (40.9)	15 (17.0)	14 (15.9)	11 (12.5)	3 (3.4)	9 (10.2)
	중	647 (78.3)				246 (38.0)	113 (17.5)	94 (14.5)	126 (19.5)	5 (0.8)	63 (9.7)
	하	91 (11.0)				32 (35.2)	13 (14.3)	12 (13.2)	19 (20.9)		15 (16.5)
보 호 자 직 업 별	농 수 산 업	349 (42.3)	19.44	20	0.4934	142 (40.7)	56 (16.0)	48 (13.8)	57 (16.3)	4 (1.1)	42 (12.0)
	상 업 서 비 스 업	213 (25.8)				78 (36.6)	42 (19.7)	33 (15.5)	44 (20.7)		16 (7.5)
	회 사 원	65 (7.9)				25 (38.5)	10 (15.4)	13 (20.0)	11 (16.9)	2 (3.1)	4 (6.2)
	공 무 원 (교 육 공 무 원)	94 (11.4)				29 (30.9)	14 (14.9)	15 (16.0)	22 (23.4)	1 (1.1)	13 (13.8)
	기 타	105 (12.7)				40 (38.1)	19 (18.1)	11 (10.5)	22 (21.0)	1 (1.0)	12 (11.4)

(**** P <0.001)

배경변인별로 통일의 저해요인으로 남한 정부의 노력부족보다는 북한 정부의 노력부족이라는데 현저히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그 밖의 배경변인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13) 주한 미군에 대한 인식

해방이후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큰 힘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통일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한미군은 언제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하리라고 보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6>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통일이 될 때까지(31.8%) ② 자주국방 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25.5%) ③ 통일이 된 후에도 계속(23.7%) ④ 잘 모르겠다(18.9%)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국가안보적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종전의 관념대로 제2의 6·25와 같은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시키는 제재장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자주국방 능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주한미군이 주둔할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5.5%이어서 주한미군의 존재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점차 자주국방 능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배경변인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14) 공산권 국가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전망

최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소련의 변화 그리고 이와 맞물린 우리의 북방정책이 남북한 관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전망이 예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 소련의 변화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여기십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6> 주한 미군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826 (100.0)				263 (31.8)	211 (25.5)	196 (23.7)	156 (18.9)
성 별	남	406 (49.2)	7.43	3	0.0594	145 (35.7)	102 (25.1)	94 (23.2)	65 (16.0)
	여	420 (50.8)				118 (28.1)	109 (26.0)	102 (24.3)	91 (21.7)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2.98	3	0.3951	172 (32.8)	135 (25.7)	128 (24.4)	90 (17.1)
	실업	301 (36.4)				91 (30.2)	76 (25.2)	68 (22.6)	66 (21.9)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6.96	6	0.3248	29 (33.0)	30 (34.1)	14 (15.9)	15 (17.0)
	중	647 (78.3)				204 (31.5)	162 (25.0)	156 (24.1)	125 (19.3)
	하	91 (11.0)				30 (33.0)	19 (20.9)	26 (28.6)	16 (17.6)
보 호 자 직 업 별	농 수 산 업	349 (42.3)	19.04	12	0.0876	117 (33.5)	69 (19.8)	86 (24.6)	77 (22.1)
	상 업 서 비 스 업	213 (25.8)				61 (28.6)	70 (32.9)	50 (23.5)	32 (15.0)
	회 사 원	65 (7.9)				21 (32.3)	20 (30.8)	11 (16.9)	13 (20.0)
	공 무 원 (교육공무원)	94 (11.4)				26 (27.7)	29 (30.9)	22 (23.4)	17 (18.1)
	기 타	105 (12.7)				38 (36.2)	23 (21.9)	27 (25.7)	17 (16.2)

<표17> 공산권 국가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전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826 (100.0)				114 (13.8)	302 (36.6)	257 (31.1)	140 (16.9)	13 (1.6)
성 별	남	406 (49.2)	5.07	4	0.2806	64 (15.8)	155 (38.2)	115 (28.3)	66 (16.3)	6 (1.5)
	여	420 (50.8)				50 (11.9)	147 (35.0)	142 (33.8)	74 (17.6)	7 (1.7)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41.73	4	**** 0.0000	82 (15.6)	202 (38.5)	175 (33.3)	56 (10.7)	10 (1.9)
	실업	301 (36.4)				32 (10.6)	100 (33.2)	82 (27.2)	84 (27.9)	3 (1.0)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10.66	8	0.2215	14 (15.9)	25 (28.4)	34 (38.6)	12 (13.6)	3 (3.4)
	중	647 (78.3)				86 (13.3)	251 (38.8)	193 (29.8)	109 (16.8)	8 (1.2)
	하	91 (11.0)				14 (15.4)	26 (28.6)	30 (33.0)	19 (20.9)	2 (2.2)
보 호 자 직 업 별	농 수 산 업	349 (42.3)	29.70	16	* 0.0197	41 (11.7)	128 (36.7)	105 (30.1)	72 (20.6)	3 (0.9)
	상 업 서 비 스 업	213 (25.8)				26 (12.2)	88 (41.3)	68 (31.9)	28 (13.1)	3 (1.4)
	회 사 원	65 (7.9)				8 (12.3)	26 (40.0)	21 (32.3)	9 (13.8)	1 (1.5)
	공 무 원 (교육공무원)	94 (11.4)				19 (20.2)	33 (35.1)	27 (28.7)	10 (10.6)	5 (5.3)
	기 타	105 (12.7)				20 (19.0)	27 (25.7)	36 (34.3)	21 (20.0)	1 (1.0)

(* P < 0.05, **** P < 0.001)

<표17>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북한을 더욱 폐쇄적인 사회로 만들어 남북관계가 악화될 것이다(13.8%) ② 북한을 어느 정도 개방시켜 남북관계의 개선을 불러올 것이다(36.6%) ③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겠지만 지금 당장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31.1%) ④ 잘 모르겠다(16.9%) ⑤ 기타(1.6%)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장단기적으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소련의 변화가 북한을 개방시켜 남북관계의 개선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67.7%)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로는 학교계열별로 $P < 0.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문계 학생(71.8%)이 실업계 학생(60.4%)보다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소련의 변화가 남북한 관계의 전망과 관련하여 훨씬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직업별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상업·서비스업(73.2%), 회사원(72.3%)이 타 직종에 비해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소련의 변화가 남북관계의 전망과 관련하여 낙관적인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15) 독일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지상과제이다. 분단국가이면서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룩한 통일독일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일의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8>에 따르면 이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우리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4.4%) ② 독일의 통일이 부럽다(22.3%) ③ 독일 민족의 노력이 커서 통일이 이루어졌다.(50.8%) ④ 어찌다가 통일이 이루어졌다(4.0%)

<표18> 독일 통일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826 (100.0)				36 (4.4)	184 (22.3)	420 (50.8)	33 (4.0)	92 (11.1)	61 (7.4)
성 별	남	406 (49.2)	6.66	5	0.2475	23 (5.7)	90 (22.2)	203 (50.0)	12 (3.0)	50 (12.3)	28 (6.9)
	여	420 (50.8)				13 (3.1)	94 (22.4)	217 (51.7)	21 (5.0)	42 (10.0)	33 (7.9)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24.59	5	**** 0.0002	24 (4.6)	116 (22.1)	261 (49.7)	24 (4.6)	74 (14.1)	26 (5.0)
	실업	301 (36.4)				12 (4.0)	68 (22.6)	159 (52.8)	9 (3.0)	18 (6.0)	35 (11.6)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8.60	10	0.5705	6 (6.8)	18 (20.5)	42 (47.7)	4 (4.5)	13 (14.8)	5 (5.7)
	중	647 (78.3)				25 (3.9)	152 (23.5)	329 (50.9)	26 (4.0)	65 (10.0)	50 (7.7)
	하	91 (11.0)				5 (5.5)	14 (15.4)	49 (53.8)	3 (3.3)	14 (15.4)	6 (6.6)
보 호 자 직 업 별	농수산업	349 (42.3)	18.98	20	0.5232	16 (4.6)	86 (24.6)	176 (50.4)	14 (4.0)	31 (8.9)	26 (7.4)
	상업서비스업	213 (25.8)				4 (1.9)	45 (21.1)	111 (52.1)	10 (4.7)	29 (13.6)	14 (6.6)
	회사원	65 (7.9)				4 (6.2)	18 (27.7)	28 (43.1)	1 (1.5)	7 (10.8)	7 (10.8)
	공무원 (교육공무원)	94 (11.4)				7 (7.4)	13 (13.8)	54 (57.4)	3 (3.2)	12 (12.8)	5 (5.3)
	기타	105 (12.7)				5 (4.8)	22 (21.0)	51 (48.6)	5 (4.8)	13 (12.4)	9 (8.6)

(*** P < 0.001)

⑤ 통일된 것이 손해라고 본다(11.1%) ⑥ 잘 모르겠다(7.4%)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선행 연구인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희³³⁾의 조사에서도 ‘독일의 통일이 부럽다(38.0%)’로 응답해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부러운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조국의 통일은 밖으로부터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된 것이 손해라고 본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11.1%나 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계열별로 $P < 0.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문계 학생(14.1)이 실업계 학생(6.0)보다 독일의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된 것이 손해라고 본다’에 더 높게 반응하고 있다. 다른 배경변인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 북한관

북한의 실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8개의 문항이 설정되었는데, 북한 사회에 대한 관심도·북한 동포·남북한 주민 생활 수준 및 생활 문화의 차이·북한의 공식명칭·북한의 통일 목표·북한에 대한 지식원·북한, 공산국가 관련 교육자료 실태 등이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북한 사회에 대한 관심도

남북분단으로 인해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생활하게 되어 동족간의 이

33) 金姬, 前掲書, p. 46.

<표19> 북한 사회에 대한 관심도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826 (100.0)				239 (28.9)	251 (30.4)	130 (15.7)	121 (14.6)	60 (7.3)	25 (3.0)
성 별	남	406 (49.2)	44.38	5	**** 0.0000	109 (26.8)	94 (23.2)	72 (17.7)	87 (21.4)	28 (6.9)	16 (3.9)
	여	420 (50.8)				130 (31.0)	157 (37.4)	58 (13.8)	34 (8.1)	32 (7.6)	9 (2.1)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8.76	5	0.1189	161 (30.7)	147 (28.0)	80 (15.2)	85 (16.2)	34 (6.5)	18 (3.4)
	실업	301 (36.4)				78 (25.9)	104 (34.6)	50 (16.6)	36 (12.0)	26 (8.6)	7 (2.3)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8.88	10	0.5436	22 (25.0)	33 (37.5)	13 (14.8)	15 (17.0)	5 (5.7)	
	중	647 (78.3)				189 (29.2)	194 (30.0)	105 (16.2)	90 (13.9)	46 (7.1)	23 (3.6)
	하	91 (11.0)				28 (30.8)	24 (26.4)	12 (13.2)	16 (17.6)	9 (9.9)	2 (2.2)
보 호 자 적 업 별	농 수 산 업	349 (42.3)	14.65	20	0.7963	102 (29.2)	102 (29.2)	57 (16.3)	55 (15.8)	20 (5.7)	13 (3.7)
	상 업 서 비 스 업	213 (25.8)				63 (29.6)	65 (30.5)	35 (16.4)	27 (12.7)	20 (9.4)	3 (1.4)
	회 사 원	65 (7.9)				18 (27.7)	20 (30.8)	11 (16.9)	9 (13.8)	4 (6.2)	3 (4.6)
	공 무 원 (<small>교육공무원</small>)	94 (11.4)				30 (31.9)	30 (31.9)	11 (11.7)	15 (16.0)	8 (8.5)	
	기 타	105 (12.7)				26 (24.8)	34 (32.4)	16 (15.2)	15 (14.3)	8 (7.6)	6 (5.7)

(**** P < 0.001)

질화 현상은 점차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생들이 북한 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 사회에 대하여 가장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19>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북한의 주민생활(28.9%) ② 북한의 고등중학교 생활(30.4%) ③ 김일성·김정일의 생활(15.7%) ④ 북한의 군사력 정도(14.6%) ⑤ 북한 정치가들의 생활(7.3%) ⑥ 기타(3.0%)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같은 또래인 ‘고등중학교 학생들의 생활(30.4%)’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28.9%)’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문항의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희³⁴⁾의 조사에서도 ‘북한 어린이의 학교생활(55.0%)’, ‘북한 주민의 생활(21.6%)’ 순으로 북한사회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동족간의 이질화 현상은 심각해 지고 있으나 여전히 한민족인 북한 동포의 생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P < 0.001$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자(37.4%)가 남자(23.2%)보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생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북한의 군사력 정도’에 대해서는 남자(21.4%)가 여자(8.1%)보다 훨씬 더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사회에 대한 남·여학생간의 관심의 영역이 현저히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의 다른 배경변인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34) 金姬, 前掲書, p.46.

<표20> 북한 동포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826 (100.0)				292 (35.4)	453 (54.8)	50 (6.1)	20 (2.4)	11 (1.3)
성 별	남	406 (49.2)	11.85	4	* 0.0185	133 (32.8)	233 (57.4)	18 (4.4)	14 (3.4)	8 (2.0)
	여	420 (50.8)				159 (37.9)	220 (52.4)	32 (7.6)	6 (1.4)	3 (0.7)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6.43	4	0.1690	193 (36.8)	276 (52.6)	37 (7.0)	14 (2.7)	5 (1.0)
	실업	301 (36.4)				99 (32.9)	177 (58.8)	13 (4.3)	6 (2.0)	6 (2.0)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11.57	8	0.1717	38 (43.2)	38 (43.2)	6 (6.8)	3 (3.4)	3 (3.4)
	중	647 (78.3)				226 (34.9)	362 (56.0)	40 (6.2)	13 (2.0)	6 (0.9)
	하	91 (11.0)				28 (30.8)	53 (58.2)	4 (4.4)	4 (4.4)	2 (2.2)
보 호 자 직 업 별	농 수 산 업	349 (42.3)	17.30	16	0.3666	119 (34.1)	196 (56.2)	19 (5.4)	12 (3.4)	3 (0.9)
	상 업 서 비 스 업	213 (25.8)				70 (32.9)	121 (56.8)	17 (8.0)	3 (1.4)	2 (0.9)
	회 사 원	65 (7.9)				20 (30.8)	39 (60.0)	3 (4.6)	1 (1.5)	2 (3.1)
	공 무 원 (교 육 공 무 원)	94 (11.4)				42 (44.7)	45 (47.9)	3 (3.2)	1 (1.1)	3 (3.2)
	기 타	105 (12.7)				41 (39.0)	52 (49.5)	8 (7.6)	3 (2.9)	1 (1.0)

(* P < 0.05)

2) 북한 동포에 대한 인식

같은 민족이면서도 만나볼 수 없는 북한 동포에 대해 학생들은 어느 정도 동포애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약 북한 학생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20>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같은 동포로 생각하고 아주 잘 대해 주겠다(35.4%) ②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하겠다(54.8%) ③ 외국인 같은 기분으로 대하겠다(6.1%) ④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경계하겠다(2.4%) ⑤ 대화를 전혀 하지 않겠다(1.3%)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35.4%의 학생이 북한의 학생에 대해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유동적이거나 기피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이 64.6%나 되었다. 이는 학생들의 의식 속에 선입견으로 북한동포에 대한 경계의식이 많이 잠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자(37.9%)가 남자(32.8%)보다 북한 동포에 대해 다소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배경변인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생활정도별로 상(43.2%)수준이, 보호자직업별로는 공무원(44.7%)이 북한동포에 대해 다른 배경변인보다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남북한 주민 생활수준 비교

남북한의 주민 생활수준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비교해 볼때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21>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우리가 아주 잘 살고 있다(64.5%) ② 우리가 약간 잘 살고 있다(29.7%) ③ 서로 비슷하게 살고 있다

<표21> 남북한 주민생활 수준 비교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826 (100.0)				533 (64.5)	245 (29.7)	36 (4.4)	7 (0.8)	5 (0.6)
성 별	남	406 (49.2)	11.75	4	* 0.0193	280 (69.0)	99 (24.4)	19 (4.7)	5 (1.2)	3 (0.7)
	여	420 (50.8)				253 (60.2)	146 (34.8)	17 (4.0)	2 (0.5)	2 (0.5)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3.82	4	0.4312	339 (64.6)	159 (30.3)	18 (3.4)	5 (1.0)	4 (0.8)
	실업	301 (36.4)				194 (64.5)	86 (28.6)	18 (6.0)	2 (0.7)	1 (0.3)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7.62	8	0.4714	61 (69.3)	22 (25.0)	4 (4.5)	1 (1.1)	
	중	647 (78.3)				418 (64.6)	190 (29.4)	30 (4.6)	4 (0.6)	5 (0.8)
	하	91 (11.0)				54 (59.3)	33 (36.3)	2 (2.2)	2 (2.2)	
보 호 자 직 업 별	농 수 산 업	349 (42.3)	16.53	16	0.4167	226 (64.8)	100 (28.7)	19 (5.4)	2 (0.6)	2 (0.6)
	상 업 서 비 스 업	213 (25.8)				140 (65.7)	68 (31.9)	3 (1.4)	2 (0.9)	
	회 사 원	65 (7.9)				43 (66.2)	18 (27.7)	3 (4.6)		1 (1.5)
	공 무 원 (교육공무원)	94 (11.4)				59 (62.8)	27 (28.7)	4 (4.3)	2 (2.1)	2 (2.1)
	기 타	105 (12.7)				65 (61.9)	32 (30.5)	7 (6.7)	1 (1.0)	

(* P<0.05)

(4.4%) ④ 북한이 조금 더 잘 살고 있다(0.8%) ⑤ 북한이 아주 잘 살고 있다(0.6%)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4.2%가 ‘우리가 잘 살고 있다’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경제성장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북한의 경제 낙후에 따른 주민들의 궁핍한 생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선행연구인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희³⁵⁾의 조사에서는 74.1%의 아동만이 ‘우리가 잘 산다’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경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수록 우리의 경제력에 대한 평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남학생(69.0%)이 여학생(60.2%)보다 ‘우리가 아주 잘 살고 있다’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생활정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상(69.3%)수준의 학생이 ‘우리가 아주 잘 살고 있다’에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하(59.3%)수준의 학생은 낮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4) 생활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식

남북의 분단으로 인한 이질화현상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의 차이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V 혹은 기타 장면에서 ‘김 일성 배지’를 가슴에 단 북한 사람을 대할 때의 느낌은?”이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22>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멋있게 보인다(4.0%) ② 우습게 보인다(30.4%) ③ 불쌍해 보인다(36.4%) ④ 어색해 보인다(24.3%) ⑤ 기타(4.8%)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T·V 혹은 기타 장면에서 가끔씩 접할수 있는 북한 사람

35) 金姬, 前掲書, p. 53.

<표22> 생활 문화의 차이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826 (100.0)				33 (4.0)	251 (30.4)	301 (36.4)	201 (24.3)	40 (4.8)
성 별	남	406 (49.2)	9.17	4	0.0570	21 (5.2)	115 (28.3)	142 (35.0)	112 (27.6)	16 (3.9)
	여	420 (50.8)				12 (2.9)	136 (32.4)	159 (37.9)	89 (21.2)	24 (5.7)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3.64	4	0.4567	26 (5.0)	158 (30.1)	189 (36.0)	128 (24.4)	24 (4.6)
	실업	301 (36.4)				7 (2.3)	93 (30.9)	112 (37.2)	73 (24.3)	16 (5.3)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10.68	8	0.2207	4 (4.5)	26 (29.5)	27 (30.7)	24 (27.3)	7 (8.0)
	중	647 (78.3)				26 (4.0)	192 (29.7)	248 (38.3)	156 (24.1)	25 (3.9)
	하	91 (11.0)				3 (3.3)	33 (36.3)	26 (28.6)	21 (23.1)	8 (8.8)
보 호 자 직 업 별	농수산업	349 (42.3)	29.50	16	* 0.0208	11 (3.2)	97 (27.8)	140 (40.1)	83 (23.8)	18 (5.2)
	상업서비스업	213 (25.8)				6 (2.8)	74 (34.7)	67 (31.5)	53 (24.9)	13 (6.1)
	회사원	65 (7.9)				7 (10.8)	25 (38.5)	15 (23.1)	17 (26.2)	1 (1.5)
	공무원 (교육공무원)	94 (11.4)				7 (7.4)	30 (31.9)	31 (33.0)	23 (24.5)	3 (3.2)
	기타	105 (12.7)				2 (1.9)	25 (23.8)	48 (45.7)	25 (23.8)	5 (4.8)

(* P<0.05)

들이 자랑스럽게 가슴에 달고 있는 김 일성 배지가 학생들에게는 우습게(30.4%) 혹은 어색해 보인다(24.3%)고 했으며 심지어 불쌍하다고 응답한 학생도 36.4%나 되었다. 이와같은 반응결과를 볼때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배경변인별로는 보호자직업별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가슴에 ‘김 일성 배지’를 단 모습이 기타직업(45.7%)과 농·수산업(40.1%)이 불쌍해 보인다는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회사원(38.5%)과 상업·서비스업(34.7%)이 우습게 보인다는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5) 북한의 공식 명칭에 대한 인식

북한의 공식 명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남한)의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공식명칭은 무엇입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23>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49.4%) ②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21.4%) ③ 조선 인민공화국(27.7%) ④ 기타(1.5%)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의 공식 명칭에 대하여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49.4%의 학생만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학생은 북한의 공식명칭에 대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사한 문항의 선행 연구인 국민학생을 대상으로한 김희³⁶⁾의 조사에서는 14.7%만이 북한의 공식명칭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국민학생에 비해 훨씬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반응의 경향은 그동안 한민족이긴 하지만 북한을 괴뢰 혹은 괴뢰도당 등으로 호칭하여 하나의 이질집

36) 金姬, 前掲書, p. 58.

〈표23〉 북한의 공식 명칭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826 (100.0)				408 (49.4)	177 (21.4)	229 (27.7)	12 (1.5)
성별	남	406 (49.2)	8.20	3	* 0.0421	212 (52.2)	87 (21.4)	98 (24.1)	9 (2.2)
	여	420 (58.8)				196 (46.7)	90 (21.4)	131 (31.2)	3 (0.7)
학교계열별	인문	525 (63.6)	36.94	3	**** 0.0000	295 (56.2)	113 (21.5)	111 (21.1)	6 (1.1)
	실업	301 (36.4)				113 (37.5)	64 (21.3)	118 (39.2)	6 (2.0)
생활 정도별	상	88 (10.7)	6.87	6	0.3326	48 (54.5)	22 (25.0)	17 (19.3)	1 (1.1)
	중	647 (78.3)				321 (49.6)	130 (20.1)	187 (28.9)	9 (1.4)
	하	91 (11.0)				39 (42.9)	25 (27.5)	25 (27.5)	2 (2.2)
보 호 자 직 업 별	농수산업	349 (42.3)	13.26	12	0.3503	158 (45.3)	78 (22.3)	106 (30.4)	7 (2.0)
	상서비스업	213 (25.8)				106 (49.8)	46 (21.6)	59 (27.7)	2 (0.9)
	회사원	65 (7.9)				34 (52.3)	12 (18.5)	18 (27.7)	1 (1.5)
	공무원 (교육공무원)	94 (11.4)				58 (61.7)	21 (22.3)	15 (16.0)	
	기타	105 (12.7)				52 (49.5)	20 (19.0)	31 (29.5)	2 (1.9)

(* P < 0.05, **** p < 0.001)

단으로 규정하면서 그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감만 고양시켜온 결과로 보인다.

배경변인별로는 성별에 따라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52.2%)이 여학생(46.7%)에 비해 북한의 공식명칭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계열별로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문계 학생(56.2%)이 실업계 학생(37.5%)보다 북한의 공식명칭에 대한 인지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배경변인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북한의 공식명칭에 대해 생활수준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자직업별로는 공무원(61.7%)과 회사원(52.3%), 상업·서비스업(49.8%)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북한의 통일목표에 대한 인식

북한은 통일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학생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통일의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24>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체제는 다르지만 민족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와 같을 것이다(17.7%) ② 어떤 형태로든 공산화 통일을 바랄 것이다(56.8%) ③ 통일목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것이다(16.6%) ④ 잘 모르겠다(8.1%) ⑤ 기타(0.8%)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56.8%의 학생이 북한은 궁극적으로 공산화 통일을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4〉 북한의 통일 목표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826 (100.0)				146 (17.7)	469 (56.8)	137 (16.6)	67 (8.9)	7 (0.8)
성 별	남	406 (49.2)	5.49	4	0.2409	76 (18.7)	224 (55.2)	64 (15.8)	36 (8.9)	6 (1.5)
	여	420 (50.8)				70 (16.7)	245 (58.3)	73 (17.4)	31 (7.4)	1 (0.2)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17.83	4	*** 0.0013	100 (19.0)	298 (56.8)	93 (17.7)	28 (5.3)	6 (1.1)
	실업	301 (36.4)				46 (15.3)	171 (56.8)	44 (14.6)	39 (13.0)	1 (0.3)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7.10	8	0.5263	15 (17.0)	48 (54.5)	16 (18.2)	8 (9.1)	1 (1.1)
	중	647 (78.3)				115 (17.8)	364 (56.3)	113 (17.5)	51 (7.9)	4 (0.6)
	하	91 (11.0)				16 (17.6)	57 (62.6)	8 (8.8)	8 (8.8)	2 (2.2)
보 호 자 직 업 별	농 수 산 업	349 (42.3)	17.40	16	0.3604	67 (19.2)	193 (55.3)	57 (16.3)	30 (8.6)	2 (0.6)
	상 서 비 스 업	213 (25.8)				33 (15.5)	121 (56.8)	41 (19.2)	14 (6.6)	4 (1.9)
	회 사 원	65 (7.9)				15 (23.1)	41 (63.1)	5 (7.7)	4 (6.2)	
	공 무 원 (교육공무원)	94 (11.4)				13 (13.8)	53 (56.4)	21 (22.3)	7 (7.4)	
	기 타	105 (12.7)				18 (17.1)	61 (58.1)	13 (12.4)	12 (11.4)	1 (1.0)

(*** P < 0.005)

유사한 문항의 선행 연구인 대학생들 대상으로한 방영준³⁷⁾ 등의 조사에서는 북한의 궁극적인 통일목표가 공산화 통일이라는데 41.2%의 반응을 보여 본 조사연구와 비교해 보면 대학생에 비해 고등학교 학생이 북한의 통일목표가 공산화 통일이라는데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의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훨씬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계열별로 $P < 0.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문(56.8%), 실업(56.8%) 계열 다같이 북한의 통일목표는 공산화 통일이라는데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배경변인별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생활정도별에 따라 생활정도가 낮을수록 북한의 통일목표가 공산화 통일이라는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보호자직업별로는 회사원(63.1%)과 기타직업(58.1%)이 타 직업에 비해 북한의 통일 목표가 공산화통일이라는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7) 북한에 대한 지식원

북한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은 주로 어디서 얻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현재 북한에 대한 지식(정보)을 주로 무엇을 통하여 얻고 있습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25>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학교 선생님(11.6%) ② 가족, 친지(2.5%) ③ T·V, 라디오(77.8%) ④ 신문(6.2%) ⑤ 학생용 잡지(0.8%) ⑥ 기타(1.0%)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북한에 관한 지식원과 관련하여 T·V, 라디오(77.8%)와 학교선생님(11.6%)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북한에 관한 지식(정보)를 얻는데 매스컴의 영향을 많이 받고

37) 방영준 외(1990), “대학생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p. 76.

<표25> 북한에 대한 지식원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826 (100.0)				96 (11.6)	21 (2.5)	643 (77.8)	51 (6.2)	7 (0.8)	8 (1.0)
성 별	남	406 (49.2)	16.05	5	** 0.0067	34 (8.4)	16 (3.9)	319 (78.6)	27 (6.7)	4 (1.0)	6 (1.5)
	여	420 (50.8)				62 (14.8)	5 (1.2)	324 (77.1)	24 (5.7)	3 (0.7)	2 (0.5)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10.76	5	0.0563	60 (11.4)	13 (2.5)	399 (76.0)	43 (8.2)	4 (0.8)	6 (1.1)
	실업	301 (36.4)				36 (12.0)	8 (2.7)	244 (81.1)	8 (2.7)	3 (1.0)	2 (0.7)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8.63	10	0.5675	8 (9.1)	2 (2.3)	69 (78.4)	7 (8.0)	2 (2.3)	
	중	647 (78.3)				73 (11.3)	15 (2.3)	510 (78.8)	38 (5.9)	4 (0.6)	7 (1.1)
	하	91 (11.0)				15 (16.5)	4 (4.4)	64 (70.3)	6 (6.6)	1 (1.1)	1 (1.1)
보 호 자 직 업 별	농 수 산 업	349 (42.3)	43.06	20	*** 0.0020	39 (11.2)	5 (1.4)	281 (80.5)	21 (6.0)	2 (0.6)	1 (0.3)
	상 업 서 비 스 업	213 (25.8)				22 (10.3)	4 (1.9)	177 (83.1)	8 (3.8)	1 (0.5)	1 (0.5)
	회 사 원	65 (7.9)				12 (18.5)	3 (4.6)	45 (69.2)	5 (7.7)		
	공 무 원 (교 육 공 무 원)	94 (11.4)				9 (9.6)	4 (4.3)	65 (69.1)	9 (9.6)	2 (2.1)	5 (5.3)
	기 타	105 (12.7)				14 (13.3)	5 (4.8)	75 (71.4)	8 (7.6)	2 (1.9)	1 (1.0)

(** P < 0.01, *** P < 0.005)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희³⁸⁾의 국민학생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에서도 북한에 관한 지식원과 관련하여 T·V, 라디오(75.3%), 학교선생님(11.4%)으로 응답하여 본 연구조사의 반응결과와 비슷하였다.

현실적으로 T·V, 라디오 등의 매스컴이나 신문, 잡지등을 통하여 인식하고 있는 북한과 교과서, 학교교육을 통하여 알게 되는 북한에 관한 실정과는 다소 괴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칫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감을 불러 일으켜 올바른 북한관 정립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P < 0.01$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78.6%)가 북한에 대한 지식원을 T·V, 라디오 등의 매스컴이라는데 다소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보호자직업별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상업·서비스업(83.1%), 농·수산업(80.5%)이 북한에 대한 지식원으로 T·V, 라디오 등의 매스컴에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회사원(69.2%)과 공무원(69.1%)은 낮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8) 북한, 공산국가 관련 교육자료 실태

학교교육 현장에서 북한 및 공산권 국가에 대한 교육자료의 비치정도와 활용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이나 공산국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우리 학교에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26>에 의하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대단히 많다(1.5%) ② 많다(4.8%) ③ 잘 모르겠다(41.4%) ④ 거의 없다(42.9%) ⑤ 전혀 없다(9.4%)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 혹은 공산권국가에 대한 자료의

38) 金姬, 前掲書, p. 66.

<표26> 북한, 공산국가 관련 교육자료 실태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826 (100.0)				12 (1.5)	40 (4.8)	342 (41.4)	354 (42.9)	78 (9.4)
성 별	남	406 (49.2)	13.76	4	** 0.0081	9 (2.2)	22 (5.4)	171 (42.1)	155 (38.2)	49 (12.1)
	여	420 (50.8)				3 (0.7)	18 (4.3)	171 (40.7)	199 (47.4)	29 (6.9)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27.56	4	**** 0.0000	7 (1.3)	30 (5.7)	225 (42.9)	234 (44.6)	29 (5.5)
	실업	301 (36.4)				5 (1.7)	10 (3.3)	117 (38.9)	120 (39.9)	49 (16.3)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5.77	8	0.6733	2 (2.3)	7 (8.0)	34 (38.6)	36 (40.9)	9 (10.2)
	중	647 (78.3)				10 (1.5)	30 (4.6)	272 (42.0)	273 (42.2)	62 (9.6)
	하	91 (11.0)				3 (3.3)	3 (3.3)	36 (39.6)	45 (49.5)	7 (7.7)
보 호 자 직 업 별	농 수 산 업	349 (42.3)	27.11	16	* 0.0403	4 (1.1)	15 (4.3)	143 (41.0)	153 (43.8)	34 (9.7)
	상 업 서 비 스 업	213 (25.8)					12 (5.6)	84 (39.4)	94 (44.1)	23 (10.8)
	회 사 원	65 (7.9)				3 (4.6)	1 (1.5)	27 (41.5)	28 (43.1)	6 (9.2)
	공 무 원 (교육공무원)	94 (11.4)				4 (4.3)	9 (9.6)	46 (48.9)	29 (30.9)	6 (6.4)
	기 타	105 (12.7)				1 (1.0)	3 (2.9)	42 (40.0)	50 (47.6)	9 (8.6)

(* P < 0.05, ** P < 0.01, **** P < 0.001)

비치 실태와 관련하여 잘 모르겠다(41.4%)와 거의 없다(42.9%)에 각각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대단히 많다(1.5%)와 많다(4.8%)에는 아주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학교교육 현장의 북한 관련자료의 비치상태가 빈약하고 활용도가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북한 혹은 공산권국가 더 나아가 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지도와 교육성과를 신장시키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고 본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자(47.4%)가 남자(38.2%)보다 북한 및 공산국가에 관한 교육자료가 거의 없다는데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계열별로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인문계열(44.6%)이 실업계열(39.9%)보다 북한 및 공산국가에 관한 교육자료가 없다는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호자직업별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직업(47.6%), 상업·서비스업(44.1%)이 북한 및 공산국가에 관한 교육자료가 없다는데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공무원(30.9%)은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활정도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생활정도가 낮을수록 북한과 공산국가와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다는데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국가관

불확실한 국가관은 한 민족의 자긍심이나 자신감으로 나타나서 통일을 위해 필요한 민족일체감의 형성을 저해하게 되며, 통일에 대한 부정적·소극적·현실도피적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관

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국가사회라는 공동체의 중요성과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인 학생들의 국가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5개의 문항이 설정되었는데, 국가 선택자유시의 태도·제2의 6·25 발발시 태도·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전쟁의 위험성·국가 당면 문제점에 대한 인식 등이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 선택 자유시의 태도

국가의 선택이 자유로울 경우 어떻게 행동할것인지 그 행동 경향을 통하여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국가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이 만약 국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27>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지금처럼 우리나라(15.3%) ②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16.5%) ③ 우리보다 잘 살진 않지만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나라(5.8%) ④ 우리나라 보다 잘 살고 민족도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나라(62.5%)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15.3%만이 지금의 우리나라에 만족하고 있으며, 나머지 84.7%는 분단되지 않거나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를 택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학생들은 민족 분단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잘 사는 나라에 대한 동경심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문항의 국민학생을 대상으로한 선행 연구 김희³⁹⁾의 조사에서는 국가 자유 선택 가능시 지금처럼 우리나라라고 응답한 학생은 24.6%, 나머지 75.4%는 분단되지 않거나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를 택하겠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임병춘⁴⁰⁾의

39) 金姬, 前掲書, p.72.

40) 任炳春, 前掲書, p.179.

<표27> 국가 선택 자유시의 태도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826 (100.0)				126 (15.3)	136 (16.5)	48 (5.8)	516 (62.5)
성별	남	406 (49.2)	10.69	3	* 0.0135	65 (16.0)	83 (20.4)	23 (5.7)	235 (57.9)
	여	420 (50.8)				61 (14.5)	53 (12.6)	25 (6.0)	281 (66.9)
학교계열별	인문	525 (63.6)	17.57	3	**** 0.0005	63 (12.0)	90 (17.1)	24 (4.6)	348 (66.3)
	실업	301 (36.4)				63 (20.9)	46 (15.3)	24 (8.0)	168 (55.8)
생활 정도별	상	88 (10.7)	5.02	6	0.5407	10 (11.4)	17 (19.3)	4 (4.5)	57 (64.8)
	중	647 (78.3)				106 (16.4)	107 (16.5)	39 (6.0)	395 (61.1)
	하	91 (11.0)				10 (11.0)	12 (13.2)	5 (5.5)	64 (70.3)
보호 자 직 업 별	농수산업	349 (42.3)	17.30	12	0.1387	64 (18.3)	48 (13.8)	26 (7.4)	211 (60.5)
	상업 서비스업	213 (25.8)				25 (11.7)	44 (20.7)	8 (3.8)	136 (63.8)
	회사원	65 (7.9)				10 (15.4)	15 (23.1)	4 (6.2)	36 (55.4)
	공무원 (교육공무원)	94 (11.4)				12 (12.8)	12 (12.8)	7 (7.4)	63 (67.0)
	기타	105 (12.7)				15 (14.3)	17 (16.2)	3 (2.9)	70 (66.7)

(* P < 0.05, **** P < 0.001)

조사에서도 71.9%가 국가를 자유 선택할 수 있을 경우 더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본 조사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국민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기 보다는 불행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큼을 볼 수 있어서 우려가 된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57.9%)보다 여학생(66.9%)이 국가 자유선택 가능시 우리보다 잘 살고 민족도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나라를 택하겠다는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계열별로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국가 자유선택 가능시 실업계열이 지금처럼 우리나라(20.9%)에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인문계열(12.0%)은 낮은 반응을 보였고, 우리보다 잘 살고 민족도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나라를 택하겠다는 데에는 인문계열(66.3%)이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실업계열(55.8%)은 낮은 반응을 보였다. 생활정도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생활정도가 낮은 하 수준이 국가 자유선택 가능시 지금처럼 우리나라(11.0%)보다 우리보다 잘 살고 민족도 둘로 나누어 지지 않는 나라(70.3%)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보호자직업별로는 국가자유선택 가능시 지금처럼 우리나라에 농·수산업(18.3%)이 타 직종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였고 공무원(교육 공무원)(67.0%)과 기타업(66.7%)이 우리나라 보다 잘 살고 민족도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나라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2) 제2의 6·25 발발시 태도

국가나 민족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국심은 확고한 국가관에서 발로한

<표28> 제2의 6·25 발발시 태도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826 (100.0)				241 (29.2)	66 (8.0)	119 (14.4)	400 (48.4)
성 별	남	406 (49.2)	79.87	3	**** 0.0000	176 (43.3)	29 (7.1)	40 (9.9)	161 (39.7)
	여	420 (50.8)				65 (15.5)	37 (8.8)	79 (18.8)	239 (56.9)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1.31	3	0.7279	157 (29.9)	45 (8.6)	75 (14.3)	248 (47.2)
	실업	301 (36.4)				84 (27.9)	21 (7.0)	44 (14.6)	152 (50.5)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6.73	6	0.3461	29 (33.0)	11 (12.5)	13 (14.8)	35 (39.8)
	중	647 (78.3)				184 (28.4)	51 (7.9)	90 (13.9)	322 (49.8)
	하	91 (11.0)				28 (30.8)	4 (4.4)	16 (17.6)	43 (47.3)
보 호 자 직 업 별	농수산업	349 (42.3)	14.23	12	0.2862	102 (29.2)	17 (4.9)	49 (14.0)	181 (51.9)
	상업서비스업	213 (25.8)				58 (27.2)	20 (9.4)	33 (15.5)	102 (47.9)
	회사원	65 (7.9)				17 (26.2)	8 (12.3)	8 (12.3)	32 (49.2)
	공무원 (교육공무원)	94 (11.4)				27 (28.7)	11 (11.7)	17 (18.1)	39 (41.5)
	기타	105 (12.7)				37 (35.2)	10 (9.5)	12 (11.4)	46 (43.8)

(**** P < 0.001)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학생들이 어떤 의지를 나타내보일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만약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28>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29.2%) ②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8.0%) ③ 안전한 곳으로 가서 살겠다(14.4%) ④ 그때가 봐서 행동하겠다(48.4%)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29.2)’ 보다 ‘그때가 봐서 행동하겠다’ 또는 ‘도피하겠다’에 70.8%의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학생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식보다는 유동적이고 개인의 안전을 우선시 여기는 자기보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국가관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설정되지 않아 혼란상태에 빠져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와같은 확고하지 못한 국가관은 소극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사고를 낳아 민족일체감을 형성하는데 저해요소가 되며 더 나아가 민족의 통일과 관련하여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유사한 문항의 선행연구인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임병춘⁴¹⁾의 조사에서는 본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46.4%나 되어 국가 위기시의 태도에 있어서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는 데에 남자(43.3%)가 여자(15.5%)보다 훨씬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기타 배경변인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나 학교계열별로 인

41) 任炳春, 前掲書, p.180.

문계열(29.9%)이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에 약간 높은 반응을 보였고 보호자직업별로는 기타직업(35.2%)과 농·수산업(29.2%)이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는 데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3)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은 북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남한사회)가 공산주의(북한사회)보다 더 좋다는 것을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29>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확실히 할 수 있다(16.7%) ② 할 수 있다(46.7%) ③ 잘 모르겠다(26.2%) ④ 할 수 없다(8.6%) ⑤ 전혀 할 수 없다(1.8%)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4.4%가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도 35.6%나 되어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응경향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우리의 교육방식이 이를테면 공산주의 이론, 북한의 실상, 공산권 국가의 실상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확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이 막연히 적개심만 불러일으키는 강의 및 주입식 학습방법으로 이루어져 온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신빙성있는 자료제시 등을 통한 공산권국가 혹은 북한과의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교가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닐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P < 0.001$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자(66.2%)가 남자(60.6%)보다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계열별로는 $P < 0.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인문계열(66.5%)이 실업계열

〈표29〉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826 (100.0)				138 (16.7)	386 (46.7)	216 (26.2)	71 (8.6)	15 (1.8)
성 별	남	406 (49.2)	20.04	4	**** 0.0005	78 (19.2)	168 (41.4)	111 (27.3)	35 (8.6)	14 (3.4)
	여	420 (50.8)				60 (14.3)	218 (51.9)	105 (25.0)	36 (8.6)	1 (0.2)
학 고 계 열 별	인문	525 (63.6)	15.00	4	*** 0.0047	82 (15.6)	267 (50.9)	120 (22.9)	49 (9.3)	7 (1.3)
	실업	301 (36.4)				56 (18.6)	119 (39.5)	96 (31.9)	22 (7.3)	8 (2.7)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8.46	8	0.3900	17 (19.3)	42 (47.7)	17 (19.3)	12 (13.6)	
	중	647 (78.3)				107 (16.5)	304 (47.0)	174 (26.9)	50 (7.7)	12 (1.9)
	하	91 (11.0)				14 (15.4)	40 (44.0)	25 (27.5)	9 (9.9)	3 (3.3)
보 호 자 직 업 별	농 수 산 업	349 (42.3)	22.68	16	0.1226	67 (19.2)	155 (44.4)	82 (23.5)	35 (10.0)	10 (2.9)
	상 업 서 비 스 업	213 (25.8)				30 (14.1)	108 (50.7)	62 (29.1)	13 (6.1)	
	회 사 원	65 (7.9)				9 (13.8)	26 (40.0)	23 (35.4)	7 (10.8)	
	공 무 원 (교육공무원)	94 (11.4)				11 (11.7)	49 (52.1)	25 (26.6)	6 (6.4)	3 (3.2)
	기 타	105 (12.7)				21 (20.0)	48 (45.7)	24 (22.9)	10 (9.5)	2 (1.9)

(*** P < 0.005, **** P < 0.001)

(58.1%)보다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호자직업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기타 직업(65.7%)과 상업·서비스업(64.8%)이 민주주의 신념에 대한 강한 반응을 보인 반면 회사원(53.8%)이 낮은 반응을 보였다.

4) 전쟁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학생들이 평소 전쟁에 대한 위험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6·25와 같은 전쟁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30>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매우 높다(24.9%) ② 높다(37.0%) ③ 모르겠다(16.5%) ④ 낮다(18.6%) ⑤ 매우 낮다(2.9%)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61.9%)의 학생이 남북한 전쟁의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최근 공산권 국가들의 붕괴로 인한 동·서 냉전체제 종식 등의 평화무드와는 대조적으로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67.0%)이 여학생(57.2%)보다 6·25와 같은 전쟁에 대한 위험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배경변인별로는 유의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학교계열별에 따라 실업계가 인문계보다 전쟁에 대한 위험성을 다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정도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전쟁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자직업별로는 농·수산업(65.7%)이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 가장 높게 반응했고 공무원(49.0%)이 가장 낮게 반응하였다.

〈표30〉 전쟁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826 (100.0)				206 (24.9)	306 (37.0)	136 (16.5)	154 (18.6)	24 (2.9)
성 별	남	406 (49.2)	13.56	4	** 0.0088	117 (28.8)	155 (38.2)	51 (12.6)	70 (17.2)	13 (3.2)
	여	420 (50.8)				89 (21.2)	151 (36.0)	85 (20.2)	84 (20.0)	11 (2.6)
학 교 계 열 별	인문	525 (63.6)	5.48	4	0.2418	125 (23.8)	195 (37.1)	80 (15.2)	108 (20.6)	17 (3.2)
	실업	301 (36.4)				81 (26.9)	111 (36.9)	56 (18.6)	46 (15.3)	7 (2.3)
생 활 정 도 별	상	88 (10.7)	4.05	8	0.8523	21 (23.9)	35 (39.8)	12 (13.6)	18 (20.5)	2 (2.3)
	중	647 (78.3)				158 (24.4)	243 (37.6)	107 (16.5)	121 (18.7)	18 (2.8)
	하	91 (11.0)				27 (29.7)	28 (30.8)	17 (18.7)	15 (16.5)	4 (4.4)
보 호 자 직 업 별	농 수 산 업	349 (42.3)	25.25	16	0.0655	95 (27.2)	135 (38.7)	52 (14.9)	54 (15.5)	13 (3.7)
	상 업 서 비 스 업	213 (25.8)				47 (22.1)	87 (40.8)	36 (16.9)	39 (18.3)	4 (1.9)
	회 사 원	65 (7.9)				12 (18.5)	25 (38.5)	10 (15.4)	15 (23.1)	3 (4.6)
	공 무 원 (교육공무원)	94 (11.4)				17 (18.1)	29 (30.9)	19 (20.2)	28 (29.8)	1 (1.1)
	기 타	105 (12.7)				35 (33.3)	30 (28.6)	19 (18.1)	18 (17.1)	3 (2.9)

(** P < 0.01)

5) 국가 당면 문제점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학생들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31>에 따르면 이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응답은 ① 자원 부족(7.9%) ② 인구증가(6.7%) ③ 환경오염(34.4%) ④ 여러가지 범죄발생(21.7%) 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12.7%) ⑥ 경제적 어려움(11.5%) ⑦ 기타(5.2)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반응결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북한의 전쟁위협(12.7%)’ 보다 ‘환경오염(34.4%)’, ‘범죄문제(21.7%)’ 등의 사회문제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16.5%)이 여학생(9.0%)보다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점으로 북한의 전쟁위협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고, 여학생은 여러가지 범죄발생(29.5%)을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점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많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남·여학생 모두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점이라는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계열별로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실업계열(44.5%)이 인문계열(28.6%)보다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점으로 환경문제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해서는 인문계학생(14.7%)이 실업계학생(9.3%)보다 다소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보호자직업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당면 문제점으로 농·수산업(38.1%)과 기타직업(38.1%)이 환경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업·서비스업(15.0%)과 회사원(15.4%)이 북한의 전쟁위협이 당면 문제라는데 다소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표31> 국가 당면 문제점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826 (100.0)				65 (7.9)	55 (6.7)	284 (34.4)	179 (21.7)	105 (12.7)	95 (11.5)	43 (5.2)
성별	남	406 (49.2)	51.86	6	**** 0.0000	37 (9.1)	34 (8.4)	145 (35.7)	55 (13.5)	67 (16.5)	37 (9.1)	31 (7.6)
	여	420 (50.8)				28 (6.7)	21 (5.0)	139 (33.1)	124 (29.5)	38 (9.0)	58 (13.8)	12 (2.9)
학교계열별	인문	525 (63.6)	47.70	6	**** 0.0000	43 (8.2)	24 (4.6)	150 (28.6)	120 (22.9)	77 (14.7)	73 (13.9)	38 (7.2)
	실업	301 (36.4)				22 (7.3)	31 (10.3)	134 (44.5)	59 (19.6)	28 (9.3)	22 (7.3)	5 (1.7)
생활 정도별	상	88 (10.7)	14.12	12	0.2928	7 (8.0)	5 (5.7)	19 (21.6)	24 (27.3)	13 (14.8)	14 (15.9)	6 (6.8)
	중	647 (78.3)				52 (8.0)	45 (7.0)	231 (35.7)	136 (21.0)	80 (12.4)	67 (10.4)	36 (5.6)
	하	91 (11.0)				6 (6.6)	5 (5.5)	34 (37.4)	19 (20.9)	12 (13.2)	14 (15.5)	1 (1.1)
보 자 직 업 별	농수산업	349 (42.3)	24.48	24	0.4342	37 (10.6)	24 (6.9)	133 (38.1)	67 (19.2)	41 (11.7)	32 (9.2)	15 (4.3)
	상서비스업	213 (25.8)				11 (5.2)	11 (5.2)	62 (29.1)	51 (23.9)	32 (15.0)	32 (15.0)	14 (6.6)
	회사원	65 (7.9)				5 (7.7)	6 (9.2)	19 (29.2)	17 (26.2)	10 (15.4)	5 (7.7)	3 (4.6)
	공무원	94 (11.4)				7 (7.4)	6 (6.4)	30 (31.9)	20 (21.3)	11 (11.7)	13 (13.8)	7 (7.4)
	기타	105 (12.7)				5 (4.8)	8 (7.6)	40 (38.1)	24 (22.9)	11 (10.5)	13 (12.4)	4 (3.8)

(**** P<0.001)

V. 結論 : 要約 및 提言

本 研究은 전반적인 국내외 상황의 변화속에서 통일후 세대를 이끌어 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統一意識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統一意識의 現況과 問題點을 考察하여 統一教育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그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統一觀에서 첫째, 統一에 대한 關心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는 통일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눈다(3.9%)보다 전혀 나누지 않는다(23.8%)에 높은 반응을 보였다. 韓民族에 대한 認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0.2%만이 북한과 미국이 축구경기를 할 경우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응답하였다. 南北分斷의 原因은 북한 집권층의 고집(37.7%)과 미·소의 냉전정책(46.7%)에 기인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인식하고 있으며, 統一의 展望에 대해서는 21.8%의 학생들이 ‘통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통일의 전망에 대해 悲觀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 統一國家體制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52.4%)이 自由 民主主義 理念과 體制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쌍방이 절충한 이념과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학생도 39.1%나 되었다.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일 민족이므로(22.3%)와 우리 민족이 더 잘 살기 위하여(39.3%)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統一의 必要性에 대해서는 낮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분단의 기간이 길어지고 남북 異質化의 深化 등으로 꼭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약해진 결과가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둘째, 統一方案에 대한 認知度에서는 우리나라의 ‘韓民族 共同體 統一方案’에 대해서는 51.8%의 학생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高麗 聯邦制’에 대해서는 75.9%의 학생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統一의 主體와 統一의 先決課題를 묻는 질문에는 62.7%의 학생이 統一의 주체는 南·北 政府指導者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統一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과반수 이상의 학생(55.0%)이 민족의식 고취를 그리고 13.8%의 학생이 이데올로기(이념)교육을 들고 있는데 이는 民族의 同質性 회복과 統一에 對備하는 教育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駐韓 美軍과 共產圈 國家의 變化에 관해서는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장치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점차 자주국방능력을 바탕으로 統一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함을 보였고, 또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장단기적으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와 소련의 변화가 북한을 개방시켜 남북관계의 개선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樂觀的인 展望(67.7%)을 하고 있다.

다섯째, 獨逸 統一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독일 민족의 노력이 커서 統一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학생이 50.8%로 統一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학생들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統一된 것이 손해라고 본다는 학생도 11.1%나 되어 주목된다.

北韓觀에서 北韓社會에 대한 關心度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는 학생들은 같은 또래인 고등중학교 학생들의 생활(30.4%)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28.9%)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北韓 同胞에 대한 認識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는 35.4%의 학생이 북한의 학생에 대해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유동적이거나 기피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도 64.6%나 되었다. 南北韓 住民 生活水準의 比較에서는 94.2%의 학생이 북한보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경제 성장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북한의 경제 낙후에 따른 주민들의 궁핍한 생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일성 배지’를 가슴에 단 북한 사람을 대할 때의 느낌이라는 질문을 통하여 生活文化의 差異에 대한 認識에서는 우습게 보인

다(30.4%), 불쌍해 보인다(36.4%), 어색해 보인다(24.3%)라고 응답하여 남북한간에 인식 차이가 현저함을 볼 수 있다. 北韓의 公式名稱에 대해서는 49.4%의 학생만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北韓의 統一目標에 대한 認識에서는 56.8%의 학생이 북한은 궁극적으로 共產化 統一을 바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북한의 통일정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北韓에 대한 知識源으로는 T·V, 라디오(77.8%)와 학교선생님(11.6%)에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교육 현장의 북한, 공산국가 관련 교육자료 비치 실태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다(41.4%)와 거의 없다(42.9%)라고 응답하여 비치상태가 빈약하고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國家觀에서는 國家의 選擇이 자유로울 경우 15.3%만이 지금의 우리나라를 택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제2의 6·25발발시 29.2%의 학생만이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고 응답하였다. 民主主義 優越性에 대한 信念에 대해서는 64.4%만이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戰爭의 危險性에 대한 認識에서는 61.9%의 학생이 남북한 전쟁의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하였고, 國家 當面 問題點에 대한 認識에서는 학생들은 환경오염(34.4%), 범죄문제(21.7%) 등의 사회문제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고등학생들의 統一意識 調查結果를 토대로 바람직한 統一意識의 形成과 向後 學校統一教育의 方向提示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統一觀 형성에는 學校教育과 大衆媒體의 影響이 크기 때문에 효과적인 學校統一教育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대중매체간의 合理的인 連繫性 確保方案이 摸索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의 학교통일교육은 설명위주의 批判教育,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敵對感情을 자아내게 하는 反共教育에 치우쳐온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動態的인 統一環境의 變化를 수용

할 수 있고 未來指向的이고 開放的이며 體系性을 갖춘 教育이 되어야 한다.

셋째, 北韓과 관련한 統一教育은 교사에 의한 일방적인 注入式 學習方法을 탈피하여 학생 스스로가 相互體制를 比較判斷하게 하여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優越性에 대한 信念을 갖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學校教育現場의 북한, 공산권국가 관련자료의 備置狀態와 活用度를 높여야 북한 혹은 공산권국가 더 나아가 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함에 있어서 效率的인 指導가 이루어지고 教育成果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학생들은 國家危機 狀況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식보다는 유동적이고 자기보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 대한 확고한 價値觀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확고한 국가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 價値教育 方案이 摸索되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1. 韓國文獻

< 單行本 >

- 金甲喆 外(1988), 『統一論議의 諸問題』, 大旺社.
- 盧重善(1985), 『民族과 統一』, 사계절.
-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1987), 『전환기의 한국사회: 국민여론조사 자료집』, 한국일보사.
- 李載昌外(1983), 『靑少年 意識構造 및 形成背景』, 韓國教育開發院.
- 鄭鎔碩(1992), 『分斷國 統一과 南北統一』, 다나.
- 統一院(1993), 『統一教育의 基本方向』.
- 統一院(1993), 『民主統一論』.
- 統一院(1988), 『서울올림픽이후 韓半島 統一環境과 南北韓 平和體制』.
- 統一院(1990), 『統一白書』.
- 統一院(1990), 『分斷國 統一問題』.
- 韓國教育開發院(1988), 『學校統一教育의 새로운 展開方向』.

< 論文 >

- 高性俊(1980), “在日濟州同胞의 統一安保意識에 관한 序說的 研究,” 『濟州大學 論文集』, 第11輯.
- 高時弘(1986), “濟州道 初·中·高 敎員의 統一意識에 관한 調查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 奇大度(1990), “韓國 統一政策의 變遷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慶尙大學校 敎育大學院.
- 김병오 외(1985), “영동지역 대학생의 통일교육과 교육개선 방안,” 『통일안보집』, 제2편, 강릉대학 통일문제연구소.

- 金富宏(1988), “婦女子의 安保, 統一意識에 관한 調査研究,” 碩士學位論文, 慶南大學校 教育大學院.
- 金周連(1992), “學校에서의 統一教育의 類型과 限界,” 碩士學位論文, 韓國敎員大學校·大學院.
- 金致洪(1983), “濟州道 中·高等學生의 統一安保意識에 관한 調査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金恒元(1981), “濟州道住民의 反共意識調査 考察,” 『凡巖 金宗業敎授華甲紀念論叢』.
- 金 姬(1993), “濟州道 國民學生들의 統一意識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 閔丙天(1989), “統一問題에 관한 國民意見 調査,” 國土統一院 第2政策官室.
- 朴吉煥(1989), “東·西獨과 南北韓의 統一政策에 관한 比較研究,” 碩士學位論文, 全南大學校 教育大學院.
- 吳甲澤(1985), “高等學校 學生들의 安保意識에 관한 調査研究,” 碩士學位論文, 全北大學校 教育大學院.
- 방영준 외(1990), “대학생의 통일외식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 李宇榮 外(1977), “統一·安保問題에 대한 大學生의 意識構造,” 平和統一研究所.
- 李相守(1983), “靑少年期の 統一安保教育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論文, 慶尙大學校 教育大學院.
- 이황규(1986),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통일논총』, 제8집, 부산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 전재만(1988), “통일관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
- 정대화(1981), “80년대 통일의 가능성과 통일방안,” 『통일논총』, 제3집, 부산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催大錫(1990), “南北韓의 統一政策에 관한 比較研究,” 碩士學位論文, 慶南大學校 教育大學院.

催淞凡(1977), “中·高等學生에 대한 統一教育(實態中心),” 統一政策 第3卷 第3號, 平和統一研究所.

추병완(1992), “통일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학교 도덕교과서 체제 개선 및 편찬방향 연구,” 『도덕국민윤리과 교육』, 제3호, 한국도덕국민윤리과 교육학회.

統一院(1991), 『大學生 統一 論文集』.

한국개발조사연구소(1990), 『통일정책추진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국토통일원.

< 기타 文獻 >

東亞出版社(1985), “意識,” 『東亞原色世界大百科辭典(第23卷)』.

鄭仁興外(1979), “政治意識,” 政治學大辭典, 博英社.

2. 西洋文獻

Almond, Gabriel A. & Sidney Verba(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Knutson, Jeanne N.(ed)(1973), *Hand Book of Political Psychology*, Jossey-Bass Publishers.

<summary>

A Study on the Unification Consciousness of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do

Lee, Wan-Seung

Social Studie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Kim, Hang-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formation of unification consciousness and some basic informations for unification education by researching the unification consciousness of high school students in Cheju-do were chosen and questioned on 3 fields - the view of unification, North Korea and Nation. All data were calculated by the percentages and χ^2 -test to clarify the differences of the variables in the above mentioned field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view of unification. The inquiry of students' concern about unification shows that they are apt to discuss unification(3.9%), and not at all(23.8%). It shows that the reasons that they should create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are that they ar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4.

unitary nations(22.3%), and their nation should be better-to-do than before(39.3%). The inquiry of the way of unification shows that they don't perceive and recognize "the way of unification by a united Korean Organization" (51.8%), and "the way of unification by Korea-federalism" (75.9%). The inquiry of the main group of unification and preconsideration for unification shows that it should be both North Korea's leaders and South Korea's(62.7%), and inspiration of a national consciousness is essential to the preconsideration for unification.(55.0%)

In view of North Korea, the research shows that students are concerned with the life of about the same age in North(30.4%), and with that of Northern Korean residents(28.9%). They respond to the question about the comparison a living standard of North with that of South, and think they are better-to-do than North Koreans(94.2%). It shows that they recognize well an official term of North Korea(49.4%), and think that North probably want to bring North and South under a communist authority(56.8%). It shows that they turn to T·V and Radio for the information of North Korea(77.8%), and turn to school teachers for it(11.6%). It shows that they don't know well the actual state of provision for educational materials concerning North Korea and Communist nations(41.4%), and they think there are none(42.9%). This leads to the fact that the actual state of provision is not so good that they make little use of their educational materials.

In view of nation, the research shows that in case they feel free to choose South or North, they want to pick up the former(15.3%). It shows that suppose the second Korea War breaks

out, they are willing to join the army and fight against North(29.2%). It shows that they respond affirmatively to faith about superiority of democracy(64.4%). In addition, the research on the risk of war shows that they think war involves a lot of risk(61.9%). And the research on the national matter in hand shows that they recognize such social problems as environmental pollution(34.4%) and a crime(21.7%).



질문지

이 질문지는 제주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평소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각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비밀이 절대로 보장 됩니다.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의 해당란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만약 ○표를 표시한 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표를 =표로 지우시고(예: ○) 다시 맞는 란에 ○표를 하십시오.
2.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하나의 란에만 ○표를 해주십시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전공 이 완 성

* 해당번호 하나에만 ○표 하십시오.

1. 학생의 성별은 ? ① 여자 ② 남자
2. 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 ① 인문계 고교 ② 실업계 고교
3. 우리집의 경제적 형편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
① 매우 여유 있다. ② 여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곤란하다.

⑤ 매우 곤란하다.

4. 보호자의 직업은 ?

- ① 농·수산업
- ② 상업 및 서비스업
- ③ 회사원
- ④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
- ⑤ 기타

5. 학교나 기타 모임에서 통일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

- ① 매우 많다 ② 많다 ③ 모르겠다
- ④ 약간 있다 ⑤ 전혀 없다

6. 북한과 미국이 축구 경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편을 응원 하겠습니까 ?

- ① 북한 ② 미국 ③ 잘 모르겠다
- ④ 둘 다 똑같이 응원하겠다 ⑤ 둘 다 응원하지 않겠다

7. 남북 분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남한 집권층의 고집 때문이다
- ② 북한 집권층의 고집 때문이다
- ③ 미·소의 냉전 정책 때문이다
- ④ 잘 모르겠다

8. 남북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십니까 ?

- ① 10년이내에 이루어 질것이다
- ② 20년이내에 이루어 질것이다
- ③ 20년후에 이루어 질것이다
- ④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 ⑤ 잘 모르겠다

9. 통일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 ① 자유 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이념과 체제에 상관 없이 통일부터 해야한다
- ④ 쌍방이 절충한 새로운 이념과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
- ⑤ 잘 모르겠다

10. 꼭 통일이 이룩되어야 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

- ① 많이 느낀다 ② 조금 느낀다 ③ 잘 모르겠다
- ④ 못 느낀다 ⑤ 전혀 못 느낀다

11. 통일이 되어야 한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단일 민족이므로
- ② 이산 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 ③ 우리 민족이 더 잘 살기 위하여
- ④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 ⑤ 잘 모르겠다

12.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인 ‘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에 대하여 ?

- ① 확실히 알고 있다
- ② 알고 있다 ③ 잘 모르겠다

- ④ 모르고 있다 ⑤ 전혀 모르고 있다

13.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 연방제’에 대하여 ?

- ① 확실히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잘 모르겠다
④ 모르고 있다 ⑤ 전혀 모르고 있다

14.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누가 먼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남한 정부 지도자
② 북한 정부 지도자
③ 남북 정부 지도자 모두
④ 남한 일반 사람들
⑤ 북한 일반 사람들
⑥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⑦ 잘 모르겠다

15. 통일을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군사력 증강 ② 민족의식 고취
③ 이데올로기(이념) 교육
④ 남한내의 민주화
⑤ 대외적 외교관계
⑥ 기타 ()

16.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

- ① 남북한의 이념대립

- ⑤ 통일된 것이 손해라고 본다
- ⑥ 잘 모르겠다

20. 북한 사회에 대하여 가장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① 북한의 주민 생활
- ② 북한의 고등중학교 생활
- ③ 김일성· 김정일의 생활
- ④ 북한의 군사력 정도
- ⑤ 북한 정치가들의 생활
- ⑥ 기 타 ()

21. 만약 북한 학생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① 같은 동포로 생각하고 아주 잘 대해 주겠다
- ②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하겠다
- ③ 외국인 같은 기분으로 대하겠다
- ④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경계하겠다
- ⑤ 대화를 전혀 하지 않겠다



22. 우리나라와 북한 주민의 생활을 비교해 볼때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우리가 아주 잘 살고 있다
- ② 우리가 약간 잘 살고 있다
- ③ 서로 비슷하게 살고 있다
- ④ 북한이 조금 더 잘 살고 있다
- ⑤ 북한이 아주 잘 살고 있다

23. T· V 혹은 기타 장면에서 ‘김일성 배지’ 를 가슴에 단 북

27. 북한이나 공산 국가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우리 학교에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대단히 많다 ② 많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거의 없다 ⑤ 전혀 없다
28. 여러분이 만약 국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
- ① 지금처럼 우리나라
 ②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③ 우리나라보다 잘 살진 않지만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나라
 ④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민족도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나라
29.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만약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①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
 ②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
 ③ 안전한 곳으로 가서 살겠다
 ④ 그때 가봐서 행동하겠다
30. 여러분은 북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남한사회)가 공산주의(북한사회)보다 더 좋다는 것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 ① 확실히 할 수 있다
 ② 할 수 있다
 ③ 잘 모르겠다

- ④ 할 수 없다
- ⑤ 전혀 할 수 없다

31. 6·25와 같은 전쟁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모르겠다
-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32.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자원 부족 ② 인구 증가 ③ 환경 오염
- ④ 여러가지 범죄 발생
- 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 ⑥ 경제적 어려움 ⑦ 기타

< 질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